



모심의 눈

- 불편한 마음을 성찰하기

기획특집

– 남의 살을 먹는 마음

- 생명이 상품이 된 기이한 컨베이어벨트의 파탄
- 육식과 채식, ‘○○주의’를 넘어서
- 살보다 술을 먹겠어요
- 비건이 싫은 당신에게
- 비인간 존재와 육식 문제
- 생명이 생명을 먹는 일

이슈

- 기후위기시대, 한살림농업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 시급
- 농업재해대책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담론

-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논의의 접점

독자모임

- 제주에서 보내온 이야기

정기구독 안내

모심과살림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담론,
한살림 안팎의 보다 다양한 현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합니다.

구독료

1년 1만 5천 원

2년 3만 원

구독 신청

이메일 mosim@hansalim.or.kr

전화 02-6931-3604

누리집 www.mosim.or.kr

연구소 누리집에서 지난 글을 보실 수 있으며, 과월호 구입도 가능합니다.



투 고 를 받 습 니 다 지면에 수록하고 싶은 글(또는 주제와 구성안)을 보내 주세요.
편집부 검토를 거쳐 수록하며, 해당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모임을 지원합니다 『모심과살림』 독자 모임을 진행하실 경우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모심과살림』 도서를 보내 드립니다.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모심과살림』 22호를 읽고 난 소감문을 보내 주시면 더 좋은 책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의견을 적어 주시거나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누어 주셔도 됩니다. 나눠주신 의견은 차기호 지면에 소개될 수 있으며, 수록된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 『모심과살림』 독자 의견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보내 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심과살림』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락 주실 곳 mosim@hansalim.or.kr

모심과 살림

22호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연구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연구자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모심과살림 22호 2023년

등록번호 강남, 사00117
발행인 신명호
편집자문위원 홍덕화, 이아름, 허남혁
편집부 임채도, 조미성, 최민영, 홍수린, 김세진
디자인 그린다
펴낸 날 2023년 11월 30일
펴낸 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81길 15 4층
 www.mosim.or.kr / mosim@hansalim.or.kr / 02-6931-3609

책값은 8천원입니다.

모심의 눈

불편한 마음을 성찰하기 — 신명호 04

기획특집 - 남의 살을 먹는 마음

생명이 상품이 된 기이한 컨베이어벨트의 파탄 — 남종영 12

육식과 채식, '○○주의'를 넘어서 — 윤지로 26

살보다 술을 먹겠어요 — 박지혜 40

비건이 싫은 당신에게 — 최서영 54

비인간 존재와 육식 문제 — 우석영 68

생명이 생명을 먹는 일 — 윤희근 84

이슈

기후위기시대, 한살림농업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 시급 — 김상통 104

농업재해대책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이수미 120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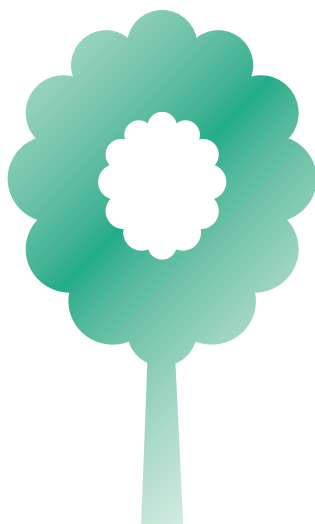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논의의 접점 — 최명애 134

독자모임

제주에서 보내온 이야기 152

모심의 눈

불편한 마음을 성찰하기



지난 10월 13일, 저희 모심과살림연구소는 한신대학교 생태문명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돌봄”이라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교환됐지만 토론회를 관통하는 핵심 주장은 돌봄의 대상과 영역이 획기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출발에는 역시 ‘난잡한 돌봄’(promiscuous care)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난잡한’이란 단어에 살짝 놀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잡한 돌봄’이란 1980-90년대 에이즈 인권 활동가였던 크림프(D. Crimp)라는 사람이 맨 처음 꺼내 든 말이라고 합니다. 에이즈 유행의 원인이 게이들의 소위 ‘문란한’ 관계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세상 미디어를 향해서, 실은 동성애자들이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친밀감을 나누는 다양한 돌봄의 관계 맺기를 실험해 왔다는, 그럼으로써 많은 생명들이 안전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썼던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난잡함’이 사실은 ‘마구잡이 야합(野合)’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실험적이고 확장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돌봄을 실천해 온 것’”라고 일갈했던 겁니다.

돌봄의 정신은 당연히 경계 짓고, 구분하고, 차별하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이 정복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순간, 돌봄의 대상은 비인간 생명체, 그리고 무생물에까지 확장됩니다. 사람이 기르는 가축과 반려동물, 식물과 광물이 우리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응시하고 상생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제22호의 특집 주제는 ‘육식과 채식’의 주제로 “남의 살을 먹는 마음”이라고 제목 붙여 봤습니다. 채식주의라는 이슈는 단순히 먹을거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을 하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매우 여러 가지 차원에 걸쳐 있습니다.

애초 채식 선호의 입맛을 타고난 경우를 차치하면, 첫째,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채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채식’이란 단어 뒤에 ‘주의’(主義)를 붙여 ‘채식주의(비거니즘)’, ‘채식주의자’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먹을거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집단의 이론 내지 신념이라는 차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 채식만 하면 과연 건강

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에 관한 이론 논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채식만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강건한 체력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더 게임 체인저스>가 각광을 받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십여 년간 과일과 채소만 먹던 유명 패션 모델이 돌연사했다는 뉴스를 열심히 퍼 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차원을 높여 보면, 위에서 말한 돌봄 윤리의 차원에서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데 동조하지 않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좋은 삶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운데서는 얻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바탕한 채식주의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온난화 위기의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육식을 단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축산업이 더 이상 융성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이는 다부진 실천입니다. 동물권을 존중하는 마음처럼 개인의 쾌락보다는 지구공동체, 생명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참으로 윤리적인 가치관입니다. 물론 한 사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전부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지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와 다른 입장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뭔가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난을 떨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비거니즘이 건강을 보장한다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틀렸다가, 사람 목숨도 지키기 어려운 판에 뭇 놈의 동물의 생명권이냐는 힐난부터, 미시적인 실천으로 어느 세월에 거대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비판론에 이르기까지, 채식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실로 다양합니다. 비거니즘을 향한 이 같은 혐오의 감정에 관해 최서영 교수님의 글(“비건이 싫은 당신에게”)은 그 내력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호가 채식주의를 특집 주제로 삼은 것은 채식주의를 옹호하거나, 채식주의 반대자들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 물론 아닙니다. 매번 그래왔듯이, 하나의 주제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두루두루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남의 살을 먹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웬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어느 이사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고수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좀 객관적으로 따져 보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여러 필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채식주의를 논할 때 고려하고 성찰해 봐야 할 지점들이 참 많이 있음을 새삼 발견하실 겁니다. 다양한 생각거리들을 나누고 때로는 예리하게 버리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한살림 식구들이 더 좋은 삶을 찾아 나가는 여정에 저희 연구소가 함께 하는 길이겠지요.

2023년 12월

신명호 모심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기
획
특
집

남의 살을
먹는 마음

생명이 상품이 된 ‘기이한 컨베이어 벨트’의 파탄

■

남종영 환경저널리스트

●
환경논픽션 작가. 전 <한겨레> 기자. 영국 브리스틀대학에서 인간-동물 관계를 공부했고, 기후 변화와 인간의 동물 통치 체제에 관심이 많다. 『동물 권력』,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등을 썼다.

✉ fandg21@gmail.com

핵심어: 시카고 ‘유니언 스톡 야드’, 공장식 축산, 코로나19, 윈 헬스, 윈 웰페어

“우리는 타이슨 푸드(미국 내 최대 육가공업체)에 돼지를 공급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화물차 55~60대에 실어 도축장에 보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5대, 이번 주에는 6대밖에 못 보냈어요.”

2020년 5월, 미국 미시간주의 해밀턴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밥 디큐이스(Bob Dykhuis) 씨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유럽을 거쳐 미국을 덮치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40년 전 작은 가족 농장에서 시작한 그는 인디애나주 북부까지 진출해 연간 돼지 50만 마리를 사육하는 대농장주라고 지역 신문인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는 전했다.¹⁾

그는 왜 돼지를 평소처럼 도축장으로 보내지 못했을까? 미국 내 도축장과 육류 가공 공장(meat packing factories) 노동자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지면서, 공장이 연이어 폐쇄했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도축장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밥 디큐이스 씨는 돼지를 농장에 두었다가 나중에 보내면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공장식 축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것이다. 공장식 축산 체제는 다수의 농장과 도축장, 가공 공장 그리고 도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1) Keith Matheny. 2020. “COVID-19 hits Michigan farmers hard, with some facing prospect of killing livestock.” *Detroit Free Press*. May 1.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져 있다. 컨베이어 벨트는 영구 기관으로 작동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 중 어느 한 곳이 고장 나 멈추면, 전체 공급망은 한꺼번에 뒤틀리고 만다.

돼지를 보자. 종돈장에서 태어난 돼지는 3주째 젖을 떼고, 어미 돼지에서 분리되어 비육 농장에서 살을 찌운다. 그리고 6개월째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도축장으로 가는 출구가 막혔다. 농장에서 돼지가 적체되기 시작한다. 점점 더 많은 돼지가 농장에서 계속 먹고 자라면서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차지한다. 돼지에게 줘야 할 사료량이 늘고, 분노 처리량도 많아진다. 농장이 과밀해진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 게다가 돼지가 350파운드(약 160kg) 이상 커지면, 도축장에서도 처리하기 힘들다. 도축장의 도축·가공 처리 용량에도, 표준화된 고기 품질 규격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농장주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느 시점에서 주판알을 튕겨 본 뒤 ‘건강한 돼지’인데도 직접 살처분하여 손해를 줄일 수밖에 없다. 고기로 쓰지 않고 말이다.

2020년 봄, 미국 농장에는 ‘고기가 되지 못한’ 돼지와 닭이 넘쳐났다. 반면, 도시의 슈퍼마켓에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부족해 못 파는 ‘육류 대란’이 일어났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현상인가? 컨베이어 벨트의 왼쪽 끝에서는 애먼 돼지와 닭을 죽이고, 오른쪽 끝에서는 그것을 돈 주고도 못 산다. 현대 공장식 축산 체제의 병리를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기이한 컨베이어 벨트의 탄생

컨베이어 시스템은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고안했다. 소수가 이용하던 비싼 사치품인 자동차의 가격을 생산 과정의 혁신으로 낮추기 위해서였다. 기존의 생산 방식이 장인을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사람이 작업물을 통제해 다루는 것이었다면, 컨베이어 시스템에서는 작업을 단순화된 여러 단계로 쪼갠 뒤 노동자를 여러 곳에 분산 배치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물을 흘려보내면 노동자가 각자의 작업을 수행해 벨트 하단부에서 상품이 완성됐다.

포드가 컨베이어 시스템의 영감을 얻은 곳은 ‘세계의 돼지 도살장’이라고 불린 미국 시카고의 대형 정육 단지 ‘유니언 스톡 야드(Union Stock Yards)’였다. 1865년 시카고 남쪽 근교에서 일군의 철도회사들이 건설한 이 단지는 미국의 시골과 오지 농장에서 기른 긴뿔소와 돼지를 기차에 태워 가져와 도축·정육 해서 고기로 만들고, 다시 기차에 실어 대도시로 보냈다. 아모르(Amour), 스위프트(Swift), 모리스(Morris), 내셔널(National), 슈바르츠차일드(Schwartzchild) 등 훗날 다국적 식품 가공업체로 성장한 빅5가 도축량의 90%를 차지했다.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가장 먼저 도입한 업체는 아모르였다. 창업자 필립 아르모(Philip Armour)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을 짓기 46년 전인 1867년, 단지 서쪽 부지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지었다. 현대적인 어셈블리 라인이 최초로 들어간 공장이었다.

해 질 녘이면 기차를 타고 살아 있는 동물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왔다. 동물들은 넓게 펼쳐진 격자형 울타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난

뒤, 이튿날 새벽 공장으로 몰이를 당해 들어가 죽었다. 도살된 동물은 머리가 땅을 향하도록 체인이나 컨베이어에 매달린 채 노동자들 사이를 지나갔다.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동유럽 출신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작업을 담당했다.

사회주의 성향의 작가 업튼 싱클레어(Upton Sinclair)는 1905년 ‘유니언 스톡 야드’를 취재해 소설 『정글』을 내놓았다. 리투아니아의 소박한 농부 유르기스 루드쿠스도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이곳에 흘러 들어온다.

“이것은 기계에 의한 그리고 응용 수학에 의한 돼지고기 제조 과정이다. 돼지들은 결백했고 안심하고 그곳에 들어갔으며 본능적인 저항을 했다… 그도 리투아니아의 삼림 지대에서 살 때 돼지를 잡아 본 적이 있었으나, 이렇게 돼지 한 마리를 수백 명이 손질하리라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²

‘유니언 스톡 야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살장이었다. 1.52km² 면적에 2,300개 축사와 공장, 그리고 호텔과 식당, 사무실을 부속 건물로 갖추고 있었다. 한 번에 돼지 7만 5,000마리, 소 2만 1,000마리, 양 2만 2,000마리를 수용하는 규모였다. 20세기 초반에는 족쇄 장치 하나가 1분에 소 70마리를 들어 올렸다.³ 인근에는 사료와 세척제, 기름, 수지 등 부산물을 이용하는 기업들도 생겨나 번성하면서 육류 가공 단지로 발전했다. 노동 과정 혁신, 저임금 노동자 투입, 물류 발달로 고깃값은 싸졌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과 빠른 속도 그

2) 업튼 싱클레어, 2009. 『정글』 채광석 옮김. 페이퍼로드. pp.57-59.

3) 제러미 리프킨, 2002. 『육식의 종말』 신현승 옮김, 시공사. p.144.

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수가 소비와 사치를 누리는 소비자본주의로 진화했다. 물론 이러한 사회 경제적 혁명이 기업의 혁신가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살아 있는 동물’이 ‘감정 없는 상품’으로 변모하는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철도망이 확산하지 않았더라면 ‘유니언 스톡 야드’는 출현하지 못했다.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당시 농장은 도시 근교를 넘어 시골로 이동하고 있었다. 철도는 ‘살아 있는 동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과거에는 농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도축했다면, 수백~수천 km 떨어진 곳의 동물을 시카고 ‘유니언 스톡 야드’로 옮겨 도축할 수 있었다.

둘째, 냉장·냉동 기술은 이렇게 먼 곳에서 가져온 살아 있는 동물을 고기로 만들어 부위별로 나누거나 식품으로 가공해 다시 먼 곳의 도시들로 보낼 수 있게 했다. 과거에 도축장은 마을이나 도시 단위로 있었다. 냉장·냉동 열차가 생기면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로컬 경제는 원거리 경제로 재편됐고, 이 과정에서 거대 육류 기업이 성장했다.

셋째, 생명을 고기로 만드는 자리에서 장인 대우를 받던 소수의 도축업자도 밀려나고 그 대신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그 자리를 채웠다. 과거 도축업자는 생명을 일대일로 대면했다. 동물의 고통을 목격했고 이는 지나친 착취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니언 스톡 야드’에서 노동자는 동물이 오면 할당된 부위만 작업한다. 하나의 생명이 표준화 된 생산 단위로 해체됐고, 각 생산 단위를 맡은 노동자들은 하나의 몸체, 즉 ‘생명’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

에게 맡겨진 부위인 핏덩어리 고기 조각을 다룰 뿐이었다. 역사가 찰스 패터슨(Charles Patterson)은 ‘유니언 스톡 야드’가 “학살의 끔찍함을 중화하고, 새로운 차원의 소외를 가져왔다”고 평했다.⁴

후기 사육 시대, 심리적 태도의 변화

공장식 축산은 1930년대 미국 양계업에서 시작한 감금 밀사 보급, 전후 질소 비료 투입으로 인한 농업 생산력 증대로 인해 잉여 생산물을 가축 사료로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형체를 갖추게 된다. 미국에서는 1920~30년대 이후 ‘주부에 의해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가정(영양)’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가정식 고기 요리를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한다.⁵ 1950년대 들어 공장식 축산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된 값싼 고기는 육식 습관을 추동하고, 도시 중심의 소비주의적 대량 육식 문화에서는 고기가 지닌 원래의 정체성, 즉 생명은 보이지 않게 된다.

역사학자 리처드 불리엣(Richard W. Bulliet)은 인간-동물 관계의 측면에서 역사를 ‘수렵·채집 시대’와 ‘사육 시대’ 그리고 ‘후기 사육 시대’ 등 세 가지 시대로 나눈다.⁶ 사육 시대는 인간이 작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가축으로 삼은 신석기 혁명 이후 개막된다. 이 시대에 인간은 가족을 이뤄 가축과 날마다 접촉하고 살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다. 가축은 계란이나 양털 같은 부산물을 생산하고, 이동과 운송 등의 기능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며 가족 경제의 핵

4) 찰스 패터슨, 2014. 『동물 홀로코스트』 정의길 옮김, 휴, p.110

5) 송인주, 2015. “소비주의 식생활양식의 형성-미국의 대량 육식문화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6. pp.315-353.

6) 리처드 불리엣, 2008. 『사육과 육식』 임옥희 옮김, 알마

심축을 담당했다. 지금처럼 고기나 모피 등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길러져 도살돼 폐기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가축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인간은 가축에 이름을 붙이고 교감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과도한 노동으로 고통받는 가축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과거의 사람들은 배려가 됐든 학대가 됐든 실체가 있는 동물과 감정을 교류했다는 점이다.

반면, 동물이 대량 생산되는 상품이 되어 버린 후기 사육 시대에 이르러서 인간은 동물과 물리적·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졌다. 과거에 어렵지 않게 목격했던 동물의 출산과 교미, 도살의 풍경을 지금의 우리가 보기란 쉽지 않다. 동물과 교감하는 기회는 반려 동물로 축소됐으며, 가축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면서 불가피하게 느끼는 거리낌도 사라졌다. 대개의 사람에게 동물은 슈퍼마켓에서 랩으로 포장된 상품으로 존재한다. 그것도 아니면 동물원에 갇힌 전시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불리엣은 ‘윤리적으로 곤란한 존재’인 가축이 시야에서 사라짐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은 동물을 맘 편히 착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후기 사육 시대에는 인간과 동물이 주고받는 정동이 사라진다. ‘가해의 은폐’와 ‘죄의식의 소거’로 이 시대 인간-동물 관계를 요약할 수 있다. 후기 사육 시대의 동물은 농장 동물(경제 동물), 반려동물, 야생 동물, 실험동물 등 인간의 목적에 따라 분할 통치된다.⁷⁸

7) Jongyoung Nam, 2014. “Free Jedol: the Biopolitics of captive dolphin release in South Korea”. Msc thesis. Geographical science, University of Bristol.

8) 남종영, 2017.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한겨레출판

농장 동물은 과거에 인간과 일상에서 얽혀 감정을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공장식 밀집 농장에 격리 수용된다. 또한, 먹이 급여, 온도 및 광원 조절 등을 최소한의 인력이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접촉면은 역사상 가장 최소화됐다. 농장 동물이 사육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이윤'이다. 하지만 동물 보호 여론은 이윤을 위한 폭주를 어느 정도 제어한다. 이를테면, 선진국에서는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법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축종별로 법적 사육 밀도를 두고 사육 방식을 표준화했다.

이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같은 생명인데도 후한 대접을 받는다. 반려동물은 소비자로서 유기농 간식을 먹고, 보호자가 없을 때는 '도그 티브이'를 보거나 전용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죽은 뒤에는 장례식으로 예우를 받는다. 인간은 그들에게 개체로서 유사인격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과 교감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위로를 얻는다.

야생 동물은 '종 다양성 보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관리된다. 반려동물과 달리 이들은 개체의 총합, 즉 '종'으로 다뤄진다. 농장의 돼지를 도살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이들의 서식처를 교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종 보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개체 수가 많을 때는 '축아 내기'(culling) 같은 관리 기법이 실행되기도 한다. 한국의 고라니나 노루가 대표적이다.

실험동물은 경제 동물로서 성격을 지니지만, 인간의 지식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농장 동물과 다르다. 인간이 대량 생산하고 대량 폐기한다. 인공 배양된 암세포를 갖고 사는 마우스, 평생 피부

에 화학약품을 바르는 토끼 등 실험동물은 인간에게 질병을 보여 주기 위해 살다가 죽는다.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개체 수를 줄이고 고통을 줄이는 ‘3R 원칙’⁹ 같은 윤리적,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동물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줄인다.

동물 실험실 안에서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의 인류동물학자 할 헤어조그(Hal Herzorg)는 실험실에는 좋은 쥐와 나쁜 쥐, 먹이 쥐가 있다고 말한다. 좋은 쥐는 케이지 안에 있는 쥐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3R 원칙’ 등 관련 법률과 제도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 좋은 쥐가 케이지에서 탈출하면 나쁜 쥐가 된다. 이 쥐들은 주택가에서 사는 스캐빈저¹⁰와 마찬가지로 동물실험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잡아서 죽여도 불법이 아니다. 먹이 쥐는 다른 실험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쥐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쥐가 같은 공간에서 산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동물윤리학 교수인 제임스 서펠(James A. Serpell)은 이렇게 평한다. “이 모든 종류의 쥐가 동일한 종에 속하며 심지어 서로 혈연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쥐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윤리적인 감정 절연 수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¹¹ 같은 종이자 생명인데도 각각의 논리와 지식 체계로 차별 대우하는 동물 실험실은 후기 사육 시대 인간의 동물 통치 기제를 보

9)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10) scavenger, 생물의 사체 따위를 먹이로 하는 동물

11) 제임스 서펠, 2003. 『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p.266

여 주는 축약판이다.

표1. 후기 사육 시대의 동물에 대한 분할 통치

구분	목적	공간	방식	제도
농장 동물	이윤	공장식 농장	사육 (사료 급여, 전염병 관리, 살처분 등)	사육 및 도축 기준, 동물 복지 기준 (법적 사육 밀도 등)
반려 동물	교감	가정	유사 인격적 가치 부여와 보살핌	반려견 호텔, 장례식장, 도그 티브이 등
실험 동물	지식	공장화 실험실	대량 생산과 실험	실험 윤리
야생 동물	보전	야생	보전과 모니터링	야생생물보호법 (포획하면 위법, 유해 조수 숙아내기)

하나의 건강(one health)에서 하나의 복지(one welfare)로

사람의 건강은 동물과 환경의 건강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머지에서 영향을 받는다. 수의학계와 공중 보건, 환경 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원 헬스(one health)’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육류 대란과 가축 살처분이라는 모순적 사건의 발생을 보며, 이를 ‘원 웰페어(one welfare)’로 확장할 필요를 느낀다.¹²

다시 2020년 봄,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미국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감염병의 최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도축장과 육류 가공 공

12) Marchant-Forde, J. N., & Boyle, L. A., 2020. COVID-19 effects on livestock production: a one welfare issue.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7.

장 노동자 그리고 공장식 축산 농장의 가축이었다. 미국 의회 조사 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초기 사우스 다코타주의 도축장 및 육류 가공 공장 노동자들은 같은 주의 일반인보다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7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브래스카주에서는 같은 직종의 노동자 5,002명이 감염됐는데, 이는 주 감염자 전체의 5분의 1에 이르는 비중이다.¹³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통계를 보면, 미국 5대 육가공 업체 247개 공장 가운데 218개 공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곳에서 5만 9,000건이 확진으로 판명돼 26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왜 노동자들은 감염에 취약했을까? 150년 전, 시카고 ‘유니언 스톡 야드’의 처지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뻘뻘이 일하는 과밀한 작업장, 큰 소음과 추운 실내에서 이뤄지는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감염병 확산을 부추겼다. 육가공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북미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진다. 공장을 채운 노동자의 다수도 이민 온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인 점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장식 축산의 컨베이어 벨트가 여기저기에서 멈춘 뒤, 얼마나 많은 가축이 농장에서 살처분되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축장을 봉쇄 조처의 예외로 한다는 긴급 명령을 내린 직후인 2020년 4월 말, 도축장 앞 벨트에서 병목 효과로 농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돼지들이 700만 마리라는 보도가

13)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2023. *Meat and Poultry Worker Safety: OSHA should determine how to address persistent hazards exacerbated by COVID-19.*

있었다.¹⁴ 이미 200만 마리의 닭이 델라웨어주와 메릴랜드주의 농장에서 살처분됐다는 얘기도 나왔다.¹⁵

어차피 도살장에서 죽을 동물이 조금 일찍 죽는 것인데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가령 잇따른 도축장 폐쇄는 특정 도축장에 물량이 몰리게 한다. 도축장이 바뀌어 이송 시간이 늘어난 동물의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진다. 동물 복지를 악화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문을 연 도축장이라도 쉬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체 노동자의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의 복지를 악화한다.

도축장 가동률이 낮아지자,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도계 처리 속도를 1분당 150마리에서 170마리로 늘리도록 면제했다. 이에 따라 닭고기 불량 판정 비율이 급전직하했는데, 이는 품질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 동시에 빠른 처리 속도로 인해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고 고통 속에 죽는 닭의 수도 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동물의 복지도 악화했다.

농장에서 자체 살처분한 돼지와 닭이 토양에서 부패하면, 침출수로 인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공중 보건상 잠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환경청은 불가피한 안락사 시행 시 농장주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¹⁶

14) Sophie Kevany, 2020. "Millions of farm animals culled as US food supply chain chokes up", *Guardian*. April 29. 3

15) Michael Corkey and David Yaffe-Bellany, 2020. Meat plant closures mean pigs are gassed or shot instead, *The New York Times*. May 14.

16)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2023. *Carcass Management of Non-Diseased Animals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COVID-19)*.

2020년 봄, 육류 대란으로 패닉을 겪었던 미국 사회는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날로 빨라지는 사회 경제적 속도, 커지는 환경·보건 위험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물신주의는 바뀌지 않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동물을 올려놓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했던 혁신가들은 훗날 우리의 신체와 정신마저 컨베이어 벨트에 껴어 돌아가리라는 건 예상치 못했던 것 같다. 시카고의 정육 공장에서 시작한 컨베이어 벨트는 우리 깊숙이 들어와 흐르고 있다. 멈추지 않고.

육식과 채식... ‘○○주의’를 넘어서

윤지로 (사)넥스트 수석

●
어딜 갔다 봐도 잘 살 법한 '범용 인간'은 아니다. 내성적인데 기자가 됐고, 말주변이 없는데 유튜브를 하고 있다. 감수성이 떨어지는데 지구와 환경 이야기를 한다는 건 더 큰 아이러니다. 하지만 그 덕에 기후 문제에 천착할 수 있었고, '나 같은 인간'을 설득하려면 어떤 내러티브가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었다. <세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지금은 (사)넥스트에서 미디어를 총괄하며 '제로 에너지 바를 운영 중이다. 『탄소로운 식탁』을 썼다.

✉ jryun0808@gmail.com

핵심어: 육식, 채식주의, 축산업, 담론 형성

일전에 경상북도 상주의 한 포도 농장을 찾았다가 인근 축산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여든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 혼자서 소 열 마리를 키우는 작은 축사였으니 축‘산업’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규모였는데 할아버지는 “젊어서는 좀 더 많이 키웠는데 규모를 줄였고, 얼마 전에 사정이 생겨 대여섯 마리 더 팔았다”고 했다.

포도 농장 주인은 할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경험 많은 분이시니 궁금한 건 다 물어보라’고 했지만, 인터뷰는 20분도 안 돼 끝나고 말았다. 축산업이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내 한우 농가의 10%는 이렇게 소 20두 미만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다. 해 짝은 겨울, 이미 해가 반쯤 누운 시각. 오늘도 정해진 일과에 따라 무심하게 축사 여기저기를 정리하는 할아버지 앞에서 차마 기후 변화와 동물권에 대해 물어볼 자신이 없었다. 자제 분은 어디 있냐, 소는 얼마나 오래 키우셨냐, 이런 시답잖은 질문 몇 개 던지고 껌연쩍게 자리를 뜬 기억이 난다.

가치와 신념이 사회의 방향타가 될 수 있을까. 가치와 신념, 욕망과 실리가 누가 써 붙이기라도 한 듯 분명히 나뉜 사회에서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쪽 편에서 가치라 믿는 것도 저쪽에선 단지 욕망으로 보이는 것도 많고, 시간이 흘러 신념이 욕망이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게 현실이다.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거나 기후 위기 시대에 먹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모심과 살림》 독자층과 나에겐 사회의 방향타가 됐으면 하는 가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동물권이냐 환경을 착한 척, 잘난 척 혹은 생트집의 동의

어로 보는 사람도 많다.

어떤 주장이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보다 넉넉하게 지면이 할애됐으니 조금 멀리 돌아가 볼까 한다.

때는 2017년 6월 19일.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앞에서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다.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퇴역을 지켜보러 원자력계 원로 인사들이 모여 있던 자리였다.

청와대 참모진마저 행사 30분 전까지 연설문 내용을 몰랐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탈원전 선언’은 누군가에게 효율성만 중시하던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과 생명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정책으로 넘어가는 가슴 웅장해지는 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듯한 심한 모욕감에 휩싸이는 순간이었다.

찬과 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를 정치권은 놓치지 않는다. 에너지원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나온 탈원전 선언은 ‘에너지’ 문제를 치열하고 소모적인 정치의 한복판으로 내던져 버렸다.

법상을 논하는 자리에서 원전으로 문을 연 것에 대해, 혹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어떤 메타포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식구’끼리 공유했던 가치관을 담장 너머 타자와 나눌 때 그 결과가 처음 의도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파장이 두고두고 얼마나 멀리, 오래 퍼질 수 있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 무리의 생각이 양적인 보편 타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물리 변화보단 화학 반응에 가깝다. 자칫하다간 본래 속성이

비가역적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 메시지와 메신저, 내용과 절차를 섬세히 다룰 수 있는 장인의 손길이 절실하다.

원전 문제를 복기해 보자. ‘원전 카르텔’, ‘원전 마피아’라는 지적은 넣어 두고 1978년으로 시계를 돌려 보자. 고도 성장기, 먹어도 먹어도 에너지가 고픈 한국 산업에 원전은 젖줄로 통했다. 근대화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자부심으로 일생을 보낸,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이들 앞에서 탈원전이 선언됐다. 원자력계는 정부에 등을 돌렸고, 야당과 언론은 그 틈을 홍해처럼 갈라 났다.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물꼬를 트기도 전에 정치에 포섭되고 말았다. 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든 높은 원전 밀집도와 원전 비리,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도 피아 식별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반올림해 2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담론의 복잡성이다. 일부의 주장이 담장을 나와 세상을 만날 땐 두터운 무관심층과 몇몇 강력한 이해 관계자를 만나게 되고 이들과 다층적인 역학 관계에 놓이면서 때론 논의가 길을 잃고 산으로 가기 쉽다. 이럴 땐 한 걸음 떨어져 나와 상황을 조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소 차갑고 밍밍한 가정에서 출발하려 한다. 그 가정이란, 적어도 2023년 대한민국에서 육식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한 줌에 불과하며, 그들이 마주해야 할 상대는 육식은 자연스럽다(혹은 옳다)고 믿는 다수의 소비자와 고기를 길러 내는 수만 축산 농가,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거대한 축산업계라는 것이다.

먹다 I -진화를 해석하는 법

육식과 채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마음은 독이 되기 쉽다. 특히 ‘우리 식습관은 인류 진화에 따른 산물이며,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는 집단주의적 생각과 ‘먹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개인주의적 생각, 사뭇 다른 진영처럼 보이는 둘이 함께 스크림을 짜고 있는 지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나마 객관적 사실을 가려 볼 만한 명제는 ‘인간은 원래 육식 동물로 진화했다’는 주장이다. 구글 검색창에 ‘are human beings supposed to(인간은 ~해야만 하는가)’까지 치면 그 다음 검색어로 ‘eat meat?(고기를 먹어야?)’가 뜬다. 과학에 기대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육식은 필연이었다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과일과 채소는 사냥할 필요 없이 비교적 쉽게 따 먹을 수 있었지만 칼로리가 낮았고, 그 대안으로 선택한 뿌리 작물은 씹기가 힘들었다. 육식은 돌의 단점을 극복한 훌륭한 식품이었다.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두뇌라는 기관은 육식 덕에 생긴 잉여 에너지를 ‘똑똑한 지능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PETA 같은 곳에서는 ‘인간의 장은 초식 동물처럼 길고, 턱이 상하로만 움직이는 육식 동물과 달리 좌우로도 움직여 어금니로 채소를 갈아 먹을 수 있는 등 초식 동

1) Zink, K., Lieberman, D. Impact of meat and Lower Palaeolithic food processing techniques on chewing in humans. *Nature* 531, pp 500-503.(2016).

물과 유사한 신체 구조를 지녔다. 인류에게 육식은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먹을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일 뿐 우리가 육식 동물로 진화한 것은 아니다²⁾라고 말한다.

영양학이나 진화론에 조예가 깊은 분이라면 양측 주장 중 어딘가에 강한 반감이 들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양쪽 의견을 들 때마다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있다. ‘인간이 고기를 먹는다/먹지 않는다’를 ‘자연의 섭리’로 확대 해석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진화 원리가 작동해 지금의 인간을 빚었으며, 그러므로 육식은 반드시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이어지는 논리적 귀결이 영 불편하다. 찰스 다윈이 일찌감치 『종의 기원』에서 말했듯 자연은 어떤 의도도 없다. 생명은 어떤 목적을 갖고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조건에 맞게 적응했을 뿐이며 그 결과 ‘인간이 고기를 먹더라(혹은 먹기도 하더라)’라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진화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았고, 여기서 나아가 ‘그러므로 채식(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정언 명령으로 확대하는 것은 진화의 의미를 곡해하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의 식생활이 진화의 산물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과 앞으로의 우리 식문화를 고민하는 게 꼭 같은 연장선상에 놓인 건 아니란 뜻이다.

먹다Ⅱ-대체가 대체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고기인 듯, 고기 아닌, 고기 같은’ 식품으로

2) <https://www.peta.org/features/are-humans-supposed-to-eat-meat>

갈등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식물성 대체육은 장밋빛 조명을 받으며 등장했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빌 게이츠 같은 초특급 인사의 지지와 투자 아래 금방이라도 축산업의 대항마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미국에서도 전체 육류 시장 대비 식물성 대체육의 점유율은 2%에 채 못 미친다. 대체육으로 각광받은 기업들은 최근 판매 감소, 대규모 구조 조정이라는 악재를 겪고 있다. 원래 두유라는 상품이 존재했던 유제품 항목에서만 비건 음료 점유율 15%로 겨우 존재감을 보일 뿐이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고기를 대체한다는 건 당신(판매자) 생각이고, 나(소비자)에겐 또 다른 고기맛 가공식품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식물성 대체육이 더는 특별하거나 신기한 먹거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지난해 한국인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은 58.4kg으로 전년보다 2.3kg 늘었다. 10년 전(40.5kg)과 비교하면 무려 44%나 늘었다. 한국인은 여전히, 그리고 매년 더 많은 고기를 찾는다. 이런 상황에서 먹거리 전환을 채식‘주의’로 접근하는 게 유효한 전략일까.

먹다Ⅲ-사랑하지만 먹는다

동물 복지는 채식주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모든 종은 평등하며, 인간이 다른 종을 착취하듯 길러 잡아 먹는 건 언젠가 인종 차별만큼이나 부적절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주장부터, 이 정도의 근원적 혐오감은 없어도 그저 ‘동물이 불쌍하다’는 개인적 감정까지 동물 복지적 관점은 여러 층위로 존재한다. 다만 이런 관점의 논의는

‘남의 살을 먹는 마음’을 주제로 한 이번 호차에서 이미 여러 분들이 다뤘을 것이므로 나는 한 번 더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로 이 글의 주제를 환기할까 한다. 부디 ‘레드팀’의 군격정으로 받아 주시길.

여러 해 전부터 육류세를 만지작거리 온 유럽에서는 육류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서사가 무엇인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제법 있다. 즉, ‘지속가능하지 않다(환경 측면), 몸에 나쁘다(건강 측면), 역겹다(동물권 측면)’ 가운데 육류 소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가장 잘 끌어올리는 게 뭘까, 하는 논의다.

결과는 대체로 동물 복지를 첫손에 꼽는다.³ 최근 독일 연구진의 육류세 수용성 조사에선 모든 세율에서 동물 복지가 기후 변화보다 훨씬 유효한 요소로 꼽혔다.

한국도 10년 전만 해도 ‘전통 식문화를 무시한 극렬 동물 단체의 과격한 주장’이라 치부됐던 개고기 식용이지만 지금은 여야 모두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동물복지에 대한 감수성은 ‘소싸움= 동물 학대’로도 넓어져 소싸움 폐지 결정을 내린 지자체까지 등장했다.⁴

그럼에도 동물권을 주장하는 마음의 온도가 우리 사회에서 ‘따뜻하다’고 여겨지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

3) Perino, G., Schwickert, H. Animal welfare is a stronger determinant of public support for meat taxation than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Germany. *Nat Food* 4, 160-169 (2023).; Gonzalo Palomo-Vélez, Joshua M. Tybur, Mark van Vugt, Unsustainable, unhealthy, or disgusting? Comparing different persuasive messages against meat consump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ume 58, 2018, pp 63-71

4) 김지숙, 2023, 27년 만에 정읍 소싸움 사라지나... 동물단체 “다른 지자체도”, *한겨레*, 2023.10.20

다. ‘사랑하지만 먹는다’는 인지 부조화가 반려 동물을 먹을 땐 작동했지만 가축에서도 그러리란 법은 없다. 되레 자기합리화의 옹벽을 쌓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먹다 IV-지구를 위해 고기를 포기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기후 변화는 가장 관심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할 얘기가 많은 주제다. 많은 사람들이 소가 트림하면서 적잖은 온실가스(메탄)를 배출한다는 건 알지만, 논에서도 만만찮은 메탄이 나온다는 사실에 놀란다. 약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논은 소 트림을 넘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었다.

그러나 곧 소 트림이 논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논 배출량(인벤토리에서는 ‘벼 재배’로 분류)은 소 트림(장내 발효)보다 28% 많았는데 2019년엔 22%, 2020년엔 17%까지 좁혀졌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통상 2~3년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이미 2023년 현재 소 트림이 논을 앞질렀을 공산이 크다. 이유야 다들 짐작하다시피 논 면적은 꾸준히 줄어든 대신 소는 그렇지 않아서다. 2018년과 올해(각 3분기 기준) 소 사육 두수는 17% 늘었다⁵. 이제 한국에서도 소 트림이 문제다.

물론, 한국에서 기후 변화가 먹거리 전환을 유도하는 데 얼마나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번식 의향 감소, 암소 도축 비중 증가로 사육 마리 수가 202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2026년부터 다시 증가해 2032년까지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리라 본다. 한우도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다.

쓸모 있는 화두인지는 모르겠다. 앞서 유럽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기후 대응에 미적지근한 우리 사회에서 ‘기후를 위해 고기를 포기하라’는 메시지는 확실히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럼에도 축산업과 기후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으나 나아가는 곳이 비슷한 세 가지 흐름(즉, 환경, 건강, 동물권)이 보다 빨리 목표 지점에 이르는데 기후 대응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말이다.

기르다 I - 다같이 굶어 죽자는 얘기

2021년 충청남도 홍성의 양돈 관련 모 단체 지부장과의 만남은 ‘신념이 사회의 방향타가 되기 어렵겠구나’를 확인한 ‘현타’ 충만한 자리였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가렸어도 인중 밑으로 구겨진 얼굴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난 친환경을 안 좋아해요. 무항생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돼지가 아프면 완치시켜서 시장에 내보내겠다는 건데 그게 왜 나빠요? 그게 동물 복지예요? 그리고 농지에도 유해성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럼 농약을 써서 그걸 없애서 동물 먹이는 게 낫지, 그냥 먹이는 게 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유기 축산의 어려움을 묻자 날 선 대답이 돌아왔다. 그간 비스한 질문(혹은 지적)에 많이 시달렸나 보다 싶었다. 화두가 기후 변화로 넘어오자 그는 끝내 화를 터뜨리고 말았다.

“소, 돼지가 갑자기 나왔습니까? 모든 활동에서 탄소가 나오는 데 소, 돼지가 문제 될 거면 지구가 진작 망했어야죠. 고기 없이 인간

이 살 수 있어요? 다같이 굶어 죽자는 얘기에요? 이렇게 파고들면 뭐 어찌자고... 가뜩이나 힘든데...”

수직 계열화가 끝난 양계를 비롯해 돼지와 소도 비슷한 단계를 밟거나 대형화하고 있다. 아직 통계를 보면 육식 전환 운동은 착잔 속 태풍은 커녕 미풍 정도에 그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축산업계는 실바람에도 물방울이 될세라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채식주의자들의 육식 폄훼는 인종차별주의자의 그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⁶거나 ‘대체육이라는 의문스런 말 대신 인공육, 인조 고기 같은 직관적인 명칭을 쓰자’⁷고 말한다.

그나마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우라면 낫다. 이렇게 조직화된 그룹이 전부라면 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축산업도 결국은 사람이다. 가축을 기르는 건 ‘사람’의 일이다. 상주 할아버지처럼 소를 키워 자식을 대학 보내고, 손주 오면 용돈도 주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축산업은 시작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소비를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생계가 걸린 업을 바꾸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다. 채식이 채식주의가 되고, 공감대를 넓히는 건 생산자 입장에서 밥그릇을 빼앗겠다는 도전이다.

‘돼지가 문제라면 지구는 진작 망했어야 하고, 돼지까지 문제 삼는 건 다같이 굶어 죽자는 얘기’라는 홍성 양돈 업체 지부장의 말은 과장일지언정 흘러들을 소리는 아니다.

6) 권민, 2023, [가락골] 축산 부정적 인식(에필로그-하), *축산경제신문*, 2023.10.6

7) 이상호, 2023, <낙성대에서> ‘대체식품’ 누굴 위한 명칭인가, *축산신문*, 2023.6.28

가축을 기르는 사람과 농촌으로 눈을 돌리면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 보인다. 낙농업계는 한참 전부터 폐업 압박에 시달렸고, 한우, 닭, 돼지 농가 역시 농촌에 드리운 고령화, 일손 부족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 더해 농촌 안에서는 악취로 지역 사회에서도 미움 받기 일쑤인, 지역 민원의 온상이다.

기르다Ⅱ-다 같이 살자는 얘기

이런 현실에서 먹거리 전환과 축산 농가의 사정을 동기화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무모한 일처럼 보인다. 어둠 속을 더듬 듯 답답한 마음이지만 어쨌든 여기가 출발 지점이다. 이런 현실 인식 위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

늦게까지 이어진 여름 더위 탓에 9월 첫 주까지 돼지 3만 4,920마리를 포함한 가축 6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한 돼지가 3만 4,788마리였는데 한철 더위가 감염병처럼 돈사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육식 문제와 농가 생존이라는 모순된 주제를 올려 농기에 기후 변화는 적절한 토대다. 육식 저감의 논거 가운데 축산업이 ‘피해자’로 등장할 수 있는 서사가 들어 있어서다. 다같이 살기 위한 논의를 쌓아 가기에 적절한 출발점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예를 들어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축 사육 두수 총량제를 축산 농가 재생 에너지나 바이오 가스 사업과 연계해 추가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거나 뉴질랜드나 덴마크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소에 물린 방귀세를 축산 관련 연구나 온실가스 감축 농가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외국 사례를 언

급하긴 했으나 현지에서도 축산 농가를 직접 겨냥하는 정책은 대부분 여전히 진통 중이다. 하지만 신념과 가치를 방향타로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

동물 복지를 향상하자는 쪽과 높은 폐사율로 수익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열악한 축사 환경을 가운데 놓고 함께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이 글의 전제로 돌아가자. 2023년 대한민국에서 육식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한 줌에 불과하며, 그들이 마주해야 할 상대는 훨씬 커다란 축산업계와 이를 떠받드는 9만 여 축산 농가다. 일부의 생각이 보편 타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선 비가역적 화학 반응을 겪을 수도 있다. 본질은 사라지고 격한 감정 대립만 남고 마는 사례, 이를 테면 원전 같은 사례의 뒤를 밟지 않으려면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의 밥상에 차려진 반찬을 물리라 하고,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에는 그에 합당한 예의와 대안이 있어야 한다.

살보다 술을 먹겠어요

당연하지 않는 살, 당연하지 않는 삶

■ 박지혜 웹툰 작가 '초식마녀'

●
맛있고 쉬운 비건 레시피를 소개하는 영상과 만화를 만듭니다. 지구에 조금이라도 덜 빛 지는 식사를 하고 싶은 비건 유튜버이자 작가입니다.

✉ tozeehe@naver.com

핵심어: 육식주의, 비건, 공존

요즘 취미가 무엇이나 물으신다면 ‘술’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요즘 취향이 무엇이나 물으신다면 ‘무알콜 맥주’라고 말하겠습니다. 무알콜 맥주는 쓴맛이 덜해서 마시기 깔끔하고, 기분은 기분대로 납니다. 유리컵에 팔팔 따라 놓으면 그냥 맥주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게 ‘식물성 고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식물성 고기에는 동물이 없고 무알콜 맥주에는 알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생김새도 맛도 향도 비슷한데 해로운 것만 쏙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콩고기 하면 스펀지 같은 식감과 맛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지금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도 무알콜 맥주와 식물성 고기 덕분에 충분히 유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관점과 환경적인 관점 등을 고려할 때 훨씬 무해한 선택지인 이 고마운 친구들이 어쩐지 가짜 먹거리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냥 고기를 동물성 고기로, 그냥 맥주를 유알콜 맥주로 부르는 게 어떨까요? 고기 같은 귀여운 이름은 육식 산업의 폭력성을 지웁니다. 토막 난 동물의 살점이 아니라 농장에서 수확해 온 열매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두 편(<왓 더 헬스>와 <카우스피라시>)을 시청하고 비건이 되기로 했습니다. 처음 비건을 결심했을 때,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빨간약을 먹은 네오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의 심정이었어요. 어제까지 간식이었던 햄 조각이 오늘은 끔찍한 범죄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먹자 골목이 이상한 나라

로 보이는 토끼 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독한 앨리스가 되기로 합니다. 동물 복지나 인도적인 도살 같은 알팍한 단어 하나 믿고 맘 편히 육식을 즐겼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이제 동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단 외적인 변화는 그렇습니다. 내적으로는 갑작스럽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딱히 드러내진 않았지만 수 년간 육식에 대한 불편함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비건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육식에 대한 거부감은 꽤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 백숙이나 삼계탕의 닭 껍질을 특히 싫어했습니다. 허연 비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겹살도 끔찍했습니다. 이 부위들을 입에 넣고 씹으면 물컹거리고 역겨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좀 더 가공을 거쳐 원래의 동물이 떠오르지 않는 소시지나 동그랑땡 같은 것을 선호했고, 아주 작은 비계 덩어리라도 느껴지면 가차 없이 뱉었습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단어조차 모르는 어린아이의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의심 없이 육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요.

20대 중반에 동생이 데려온 유기견을 함께 돌보며 동물과 처음으로 교감했습니다. 난생처음 개의 사랑스러움을 알아 버린 저는 진심으로 ‘개를 먹으면 안 되는 근거’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동물을 먹으면서 개고기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처럼 치킨도 시켜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거지만 개고기는 아무도 못먹게 할 수 있는 빈틈 없는 논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럴싸한 여러 의견들을 읽어 봤지만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

다. 의식 한 켠에 자리 잡은 이 씨앗은 조금씩 뿌리를 내리더니 결국 수년이 흘러 비건으로 발현되고야 말았습니다.

고기로 태어나 죽음 당하는 동물의 처지를 더 정확히 알고 싶어 경기도에 있는 도살장 앞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서울 애니멀 세이브’라는 단체에서 진행한 ‘비질’¹⁾이라는 활동이었는데, 농장 동물의 마지막을 목격하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돼지들에게 줄 수박을 자르고 감자를 삶느라 거의 잠을 못 잤으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정신이 바짝 들어 있었습니다. 비질 참여자는 스무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려 모든 풍경이 회색이었습니다. 높은 벽에 가려진 도살장 내부에서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대국밥집에서 맡았던 냄새와 비슷하지만 훨씬 진한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활동가들의 안내를 따르며 트럭 안 돼지들에게 마지막으로 물과 감자, 수박을 먹였습니다. 지치고 굶주려서 물을 받아먹을 힘조차 없는 돼지도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기 돼지 한 마리가 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창에 앞발을 걸치고 고개를 젓혀 하늘을 바라보는 표정이 조금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갇혀 있던 오물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느끼는 시원한 빗물과 바람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어김 없이 비명이 쏟아지는 문으로 끌려 갔습니다. 후생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돌렸습니다. 싸늘한 벽 옆으로 무궁화가 예쁘게

1) vigil, 도축장 앞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증인이 돼 기억·기록·공유하는 활동.

피어 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은 공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 벗긴 가죽을 쌓아 놓고 약품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살장 근처에는 방금 죽은 돼지와 소의 신체들이 신선한 식재료로 팔립니다. 동물들은 목격이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고기가 되어 나왔습니다. 붉은 조명과 미끌거리는 바닥, 비린내 나는 탁자 위에 내장과 잘린 머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같이 도축장 직판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활동은 끝납니다. 조용히 바라만 봐야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선 안 됩니다. 상인들은 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들으라는 듯 수근거리며 지나가는 길에 물을 뿌렸습니다. 나는 괜히 잘못된 사람 마냥 뜨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합법. 죽이지 말라고 하면 불법. 하얀 냉장 트럭 밖으로 쏟아지던 핏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최소 한 달에 한번, 기숙사가 있는 경기도에서 본가인 경상남도까지 장거리 버스 이동을 했던 저는 종종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트럭들을 마주쳤습니다. 그 트럭은 버스만큼이나 크고 높았습니다. 창을 사이에 두고 트럭에 실린 눈과 마주쳤습니다. 사람이 아닌 소의 눈, 돼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아닌 것처럼 꾸역꾸역 실려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멀미를 안 하나? 왜 저렇게 신고 가지? 엄청 불편해 보이는 데...’ 열일곱살 나의 사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동물도 멀미할 수 있다는 걸 몰랐고 트럭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과거의 장면을 마주하며 말합니다. ‘너희들은 죽으러 가는구나.’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본 돼지들은 고작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무게로 값을 받다 보니 오래 살려둬 봐야 비용만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9년에서 15년 정도 살 수 있는 돼지들은 110~120kg이 되는 6개월 무렵에 도축장으로 보내집니다. 돼지는 내장부터 껍데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에게 먹힙니다. 모든 것을 보진 못했지만 육식을 끊기에는 충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안주는 물이죠.” 술보다 안주를 좋아하던 내 입에서 술에는 물이 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술집보다는 밥집을, 밥집보다는 찻집을 좋아하지만, 퇴근 이후인 저녁에만 해방되는 대부분의 삶에 맞춰 장소를 고르다 보면 결국 술, 술집입니다. 당연히 비건 식품인 줄 알았던 술도 정제 과정에서 생선 부레나 달걀 부산물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3년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도 편하게 그걸 선택합니다. 동물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서 먹는 자리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술자리만 한 게 없는 까닭입니다. 두 손가락으로도 거뜬한 작은 잔을 비우기만 하면 굳이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섞일 수 있습니다. 밥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불청객이지만 술집에서 안주를 먹지 않으면 오히려 환영받습니다. 돈은 똑같이 냅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주문하세요.” 고기도 치즈도 안 먹지만 술과 고기가 오르는 식탁에 끼고 싶어 하는 이 채식주의자를 위해 다정한 이들이 과일 안주라도 시켜 주려 하면 일단은 거절합니다.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배부르지 않은 안주는 돈이 아깝다고 여긴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가성비 떨어지는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은 누굴까 궁금했는데 이제 거울을 보면 됩니다. 지금은 과일 안주

가 반갑지만 과거의 저처럼 내심 돈 아까워 하는 이가 있을까 봐 굳이 시키지 말라는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채식보다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식단은 금식이니까, 단식 수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물잔을 가득 채웁니다. 모두와 잘 어울리고 싶은 욕심에 나의 신념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존재들이 기름진 냄새를 풍기며 잡혀 먹힙니다.

진주에서는 10월이면 남강 유등 축제가 열립니다. 강 위에 형형색색의 커다란 유등이 빛을 뿜어 내며 떠 있고 강변을 따라 뿔 모양의 지붕을 가진 야시장이 늘어섭니다. ‘거리 두기’가 끝나고 오랜만에 느끼는 북적거림과 활기가 좋아 시간 되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구경 갔습니다. 쌀쌀한 강가, 먹거리를 사고파는 사람들 사이로 머리와 발만 잘린 채 구워지는 돼지와 언제 죽은 건지 알 수 없는 바다 생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부침개나 국수처럼 동물을 넣지 않아도 맛있을 요리에 굳이 동물을 잘라 넣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시장 분위기를 즐기고자 5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밥, 오뎅탕, 더덕 파전을 주문했는데 그나마 동물성이 가장 적게 들어간 더덕 파전이 제일 인기가 좋았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물성으로만 조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의 사장님은 기꺼이 채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동물성을 빼면 맛이 없을까 봐 걱정할 뿐입니다. 채식은 이렇게 종종 맛없다는 오해를 받는데, 그 맛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두 느껴 보면 좋겠습니다. 채식이든 육식이든 제대로 요리하지 않으면 맛이 없는 법입니다. 잘못 만들 경우, 오히려 동물성 음식이 더 역합니다.

같은 원리로 길거리 음식은 동물을 넣지 않는 게 더 맛있습니다. 위생을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동물성 식품은 그 특유의 냄

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부패한 듯한 살점 냄새, 은근히 풍기는 피비린내... 사장도 손님도 누구나 고기를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불필요한 죽음을 조미료처럼 넣습니다. 심지어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 때문에 고기를 참고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육식을 욕망한다는 착각이죠. 물론 개인의 탓만은 아닙니다. 이 사회가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비건을 결심하기 전부터, 채식하는 친구를 만나면 고기를 안 먹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채식하는 친구는 제가 고기를 참고 있다고 오해하더라고요.

“너희, 고기 시켜 먹어도 돼.”

“아냐. 고기 안 먹고 싶어.”

“나는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진짜 안 먹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끼니마다 고기를 고집하진 않습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어도 육식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꽤 존재합니다. 다양한 삶을 보지 못한 이들은 어떤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삶, 결혼을 원하는 삶, 매일 남의 살을 먹는 삶 같은 것들... 누군가 철석같이 믿는 당연함은 실존하는 다양함을 지웁니다. 편리하지만 배타적이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폭력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일시적으로 다수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거나 수많은 희생을 치른 대가입니다. 운이 좋아 누리는 권리를 당연히 여기면 안됩니다. 끼니마다 고기 반찬을 먹고 음

식품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장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 그래도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고 즐거운 식단이 아닙니다. 100g의 살점에도 목숨 값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누군가는 윤리적인 이유로 먹고 싶지 않아 하고 누군가는 건강상의 이유로 먹고 싶지 않아 합니다. ‘비건을 실천하는 나’를 우선시 했다면 식탁 위에 놓인 온갖 살점을 건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수도권인 작은 지방 도시에서 나는 이들이 겪는 유일한 채식주의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감정 상태보다는 거북하지 않은 채식주의자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치킨을 보며 케이지 안에서 산채로 썩어가는 닭, 아니, 병아리를 떠올린다는 것을, 오징어를 보며 거대한 그물 밖으로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수많은 해양 동물들을 떠올린다는 것을 들키면 않으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 술잔을 부딪힙니다. 죽음의 맛을 즐기는 연극에서 당신들은 동물의 시체를 먹고 있다고 외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세 번 중 한 번꼴로 모두 채식 메뉴를 먹으러 갑니다. 내가 가는 모임마다 동물을 먹지 않는 선택지가 추가됩니다. 이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견딘 순간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기에 가는 가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채식 짜장면과 양장피를 파는 중식당, 도보 거리에 있는 비건 안주를 파는 맥주집. 알배추 스테이크와 두부 완자가 올라간 비건 야끼 소바를 먹습니다. 배제되는 이 없이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차려집니다. 꾸준히 모임을 나가다 보니 나와 단 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자기도 육식에 거

부감이 든다고 밝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를 만난 이후로 고기를 보면 동물이 떠오른다는 말을 들으면 반가움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죽음을 못 본 척하는 연극에서 깨어났다는 은밀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은 친구와 카페에 갔다가 카페 사장님이 호의로 내 준 시나몬롤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습니다. 채식인이 아닌 친구는 맛있게 감탄했지만 저는 한 입 베어 문 순간 비릿한 우유 향과 달걀 맛을 느꼈습니다. 최대한 맛이 닿지 않도록 꿀꺽 삼켰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와 물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사뿐사뿐 걸어오는 회색 줄무늬 고양이도 보입니다. 고양이는 가게 앞에서 농장 동물을 갈아 만들었을 사료를 아작아작 먹습니다. 길 위의 고양이를 챙겨 주는 마음, 손님에게 서비스로 시나몬롤을 내주는 마음, 그 다정함은 너무 고맙고 좋았지만 “죄송해요. 이제 저는 닭과 소를 착취한 맛과 양을 즐기지 못하겠어요.”

고맙고 미안해서 기쁘고 슬퍼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건 동물들인데 왜 내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며 함께 간 친구에게 시나몬롤을 다 먹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따뜻한 진심을 환대하지 못하는 진실을 품고 사는 것이 조금은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희로애락은 모두 축복이니까요. 슬픔이 슬프지 않고 부조리에 분노할 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비인간 동물에겐 결코 주어지지 않는 극복이라는 기회가 있습니

다. 삶이 축복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적용 가능한 ‘참’입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나 존재 자체를 거세 당하는 동물들 앞에서는(실제로도 수컷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갈리거나 마취 없이 거세 당합니다.) 차마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말들, 일들이 재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갈등, 다툼도 그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연도 식탁 위에 놓인 살점보다 극적이지 않으니까요.

한 번은 비건에 대해 잘 안다는 듯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째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건에 대해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장단점을 이론적으로 늘어 놓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비건은 옆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동기가 그렇다고 해도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더 윤리적이냐를 견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동물 착취를 멈추는 것입니다.

가끔은 온 거리마다 도살장 풍경을 커다란 화면으로 띄워 두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일이 아니라고, 들리지 않는다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동물을 고문하는 일에 동의하는 거라고. 육식을 줄이지 않으면 동물의 고통은 줄어 들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눈에만 죽은 이들이 보이는 세상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치킨집, 고깃집, 횡집, 백화점, 마트, 정육점. 눈 닿는 곳마다 끔찍

한 죽음이 보이지만 모두들 즐거워 보입니다. 매순간 비극을 목격하면서도 미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대체로 달리기가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뛰어도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느끼면 왠지 겸손해지며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영화 <조커>로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수상한 호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가 제작에 참여한 다큐멘터리 <도미니언(Dominion)>은 2018년 작으로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돼지, 닭, 소, 거위, 양. 음식과 옷, 오락거리로 취급되는 많은 동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담은 영상입니다. 동물들이 겪는 일이 몹시 끔찍하기 때문에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가끔씩 도미니언을 추천하면 자신은 잔인한 걸 못 본다며 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인한 걸 보기 싫어 하는 이들이 잔인하게 만들어진 고기는 먹습니다. 다른 방면에서는 책임감 있고 좋은 면을 가진 사람일 테지만, 동물들에게는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가해자입니다.

그렇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범입니다. 저 역시 여전히 일부 가해자입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지만 사랑은 틀리지 않기에, 증오보다는 사랑을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덜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동물을 인간처럼 사랑했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제로 임신 시키고 마취 없이 부리와 뿔을 자르고, 몸을 들릴 수 없는 작은 철장에 가두지 않았을 거예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지만 관찰 가능하고 강력하죠.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해 못 하는 그 무언가를 의미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 대한 증거일지 모른다고요.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예요. 이해는 못 하지만 믿어 보긴 하자고요.”

내가 없으면 막창집이나 고깃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사랑하기 위해 어떤 감정의 스위치를 꺼 둡니다. 옹고 그림이 아닌 닳음과 다름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제각각인 모두를 껴안고 싶습니다. 나라는 인간 하나가 누군가의 시간과 생명을 앗아 가며 우리는 풍요를 생각하면 매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로서 기꺼이 기쁨 의무와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한 얼굴로 괜찮다고 말할 겁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타인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 물질에서 생태의 연결 고리를 보는 사람, 관습을 합리화하지 않는 사람, 공생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비건도 먹을 만한 메뉴가 있는 식당을 찾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이 모든 이를.

오늘은 어떤 안주를 시킬지 고민하는 친구들 사이로 슬쩍 끼어 듭니다.

“나는 물이면 돼.”

비건이 싫은 당신에게

최서영 스텡슨 대학

●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스텡슨대학교(Stetson University)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의 환경 운동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미디어 실천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해석하고 설명해왔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소비자 형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 sychoi8125@gmail.com

핵심어: 비거니즘, 안티비건, 비건-논비건 대화

연구차 한국의 비건을 인터뷰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안티 비건’의 말과 행동이 비건에게 어떻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도처에 암약하는 복병처럼 다가오는지, 이를 마주하는 경험이 어떻게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의 생각을 버리고 동물과 함께 공존하려는 마음을 성장시키는지 말입니다.¹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비거니즘의 등장과 전개에 역설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당신의 얼굴이, 비건이 싫은 당신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때로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말입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있나 봐요. 안티 비건, 비건 혐오, 비건 포비아 같은 키워드에 걸리는 기존 연구들이 꽤 많았습니다.² 이를 바탕으로 비건이 싫은 마음이 자리한 풍경의 다채로움을 당신에게 보여 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러이러한 마음에서 비건이 싫었던 건지 말을 건네기 위해서요. 그 ‘싫은’ 느낌이 가진 위태로움과 그 이면의 변화무쌍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간결한 정보 전달을 위한 어조 변화에 유

1) Su Young Choi, “‘Veganism Will Rise like Feminism’: The Porous Contestation of Intersectional Vegan Feminism against the Exclusive Politics of Korean Popular Feminism,” In *Gender and Food in Transnational East Asias: Toward a New Dialogue across Boundaries* eds. Jooyeon Rhee, Chikako Nagayama, & Eric Ping Li. (Lanham, MD: Lexington Books, 2021). pp. 105-124.

2) Carmen Aguilera-Carmerero and Margarita Carretero-González, “The Vegan Myth: The Rhetoric of Online Anti-Veganism,”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Vegan Studies* ed. Laurath Wright. (London, UK: Routledge, 2021). pp. 354-366. 일례로 이 연구는 스페인어 기반의 안티 비건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타난 다양한 수사를 설명한다.

의하시고요.

위협

“비건들을 한 명 한 명 죽이는 이야기를 다루는 연재물은 어때요? 그들을 잡아 가두고 취조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이들에게 강제로 고기를 먹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요.”

2018년 영국의 고급 슈퍼마켓인 체인 웨이트로즈(Waitrose)가 발행하는 《푸드 매거진(FOOD Magazine)》 편집장 윌리엄 시트웰(William Sitwell)은 비건 레시피 연재물을 제안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를 이렇게 조롱했다. 이러한 답변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자 그는 결국 사임했지만, 이 일화는 비건 혐오의 예시로 널리 회자되었다.³ 그의 발언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적대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한 걸까.

고기는 물론 동물의 몸을 이용해 만든 모든 제품을 쓰지 말자는 비거니즘 제안. 이를 수용하면 일차적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 즉, 소비자로서 불편해진다. 갈 수 있는 식당이 급격히 줄고, 배달 앱도 무용지물이 되며, 편의점에서 누리는 편의도 상당 부분 증발한다. 우리는 동물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체계적 착취가 매끄럽

3) Abigail Higgins, “Why do people hate vegans so much?” last modified November 10, 2018,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8/11/2/18055532/vegans-vegetarian-research-uk>

게 포장되고 제도화되는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 질서 하에 살고 있다. 이를 거슬러 대안적 삶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런해야 한다. 동물의 몸을 소비하지 않는 대안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계속 궁리하고, 때로는 장을 봐 스스로 요리하고, 도시락을 싸는 일련의 행위는 별도의 시간, 독립적 공간, 인지적 자원, 여분의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실천을 일상에 편입시키려면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인간관계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를 피하려면 본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섬세한 조정과 협상의 달인이 되거나, 대안적 커뮤니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거니즘의 진입 장벽 자체가 곧바로 비건이 싫은 감정으로 둔갑하지는 않는다. 마치 수학이 어렵다고 수학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듯 말이다. 비건 혐오의 발화 지점은 실천 자체보다는 ‘의미’ 영역에 있다. 현란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내게 먹는 쾌감과 편리함을 제공해 왔던 물질들이, 실은 나의 윤리적 고려를 요구하는 것이며, 생명이 당하는 폭력에 기반해 있음을 비거니즘은 환기시킨다. 그렇게 일상의 소비 행위가 지닌 윤리적 차원에 직면하길 요구한다. 그렇기에 고기와 동물성 제품 거부를 개인의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동물 착취와 학대에 반대하는 윤리적인 행위로 의미화하는 순간 이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된다. 이는 동물을 사랑하거나 자신은 기본적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고 여기

는 윤리적인 자아상에 균열을 낼 수 있다. 비거니즘은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지 부조화’⁴ 상태를 조성하고 이로 인한 내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짜증 나고 불쾌한 것이다. 이러한 불편과 불화는 집단 차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주로 고기 요리를 함께 먹는 것을 매개로 구성원의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는 회식, 명절 등 많은 문화권의 사회적 관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불편한 마음을 지우는 손쉬운 방법은 나와 우리의 긍정적인 윤리적 자아상을 위협하는 비거니즘을 싫어하고, 이를 설파하는 비건을 비난하는 것이다.

한국보다 비거니즘이 대중화된 서구 사회에서는 그만큼 비거니즘을 깎아내리고 비건을 이상한 사람들로 주변화하는 담론 또한 대중화되어 있다. 일례로 영국 언론의 비거니즘 재현에 관한 연구⁵에 의하면, 영국의 일간지들은 비거니즘을 따라 하기 불가능한 실천으로 묘사하거나, 비건을 금욕주의자, 유행 추종자, 순진한 감상주의자, 호전적 극단주의자로 정형화하며 비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타블로이드지는 비건을 폭력적이고, 위선적이며, 자신과 자녀의 건강에 무책임한 삶의 방식을 비윤리적으로 밀어붙이는 광신교 집단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에서

4) 인지부조화는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상호 모순되는 믿음이나 가치, 태도를 동시에 지닐 때 느끼는 되는 마음의 불편함을 지칭한다. 고기를 먹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고기의 맛을 즐길 때 느끼는 찝찝함이 이에 해당한다.

5) Matthew Cole and Karen Morgan, “Vegaphobia: Derogatory Discourses of Veganism and the Reproduction of Speciesism in UK National Newspaper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2, no.1 (2011):134-153.; Gavin Brookes and Malgorzata Chalupnik, “Militant, Annoying, and Sexy: A Corpus-based Study of Representations of Vegans in the British Press,” *Critical Discourse Studies* 20, no.2 (2023): pp. 218-236.

이렇게 공공연하게 비건을 깎아내리는 것은 이에 호응하는 여론이 상당함을 반증한다. 비거니즘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자아상에 대한 위협을 역공격, 즉 비건에 대한 윤리적 낙인과 인신공격으로 잠재우는 접근이 쉽게 채택되는 것이다.

비거니즘이 제기하는 윤리적 불안과 위협의 정도는 본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어떤 강도로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육식을 힘과 남자다움, 자연에 대한 지배 등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남성성을 상징하는 행위로 여길수록⁶ 여성보다는 남성이 육식에 도전하는 비거니즘에 더 거리를 두거나 적대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젠더 정체성 차원에서 보면 비건 남성이 어떻게 비거니즘을 여성의 전유물로 여기는 시각에 대응해 스스로 남성성을 규정하는지에 관한 연구⁷는 흥미로운데, 이는 정체성에 스며든 사회 문화적 의미가 어떻게 개인의 비거니즘 수용 과정을 매개하는지⁸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비건 남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남성성의 영역을 재정의하고 확장

6) 캐럴 J. 아담스, 2018. 『육식의 성정치』 이매진.

7) Jessica Greenbaum and Brandon Dexter, "Vegan Men and Hybrid Masculinity," *Journal of Gender Studies* 27, no. 6 (2018): pp. 637-648.; Catherine Oliver, "Mock Meat, Masculinity, and Redemption Narratives: Vegan Men's Negotiations and Performances of Gender and Eating," *Social Movement Studies* 22, no.1 (2023): pp. 62-79.

8) 2019년 6월 속명여대에서 대자보 "비건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교차성'은 실재하는가?"를 쓴 이는 "내가 페미니스트가 된 이유는 여성에 관한 차별을 말하기 위함"이며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이 맥락을 같이한다는 논리로 여성이라면 비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피억압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고수한다면, 여성 또한 동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간 종의 구성원이라고 보는 비거니즘은 여성의 '피해자 정체성'이 지닌 도덕적 지위에 균열을 내기에 이로 인한 위협을 느껴 비거니즘을 거부할 수 있다.

하는 방식, 즉 “동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이 진짜 남자다운 행위”로 비거니즘과 남성성을 화해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에 대한 위협 여부가 비거니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준다.

우려

비거니즘 실천의 윤리적 이유나 이와 관련된 자아 정체감과 별개로 비건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만 집중해 비거니즘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비건식이 필수 영양소의 결핍을 일으켜 영양 섭취에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과학적 연구와 건강 담론을 가져와 비건식의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톤으로 지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Reddit)의 안티 비건 게시판⁹을 조사한 연구⁹는 게시판 참가자들이 비건 식단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건식을 유지하는 것은 천천히 기아 상태에 빠지는 것과 다르 없다”, “비건이 되면 늘 아프다”, “비거니즘은 식이 장애”라고 생각하는 참가자들은 각종 영양소(비타민 B12, 오메가3, 카르니틴, 타우린, 철분, 코엔자임 Q10 등) 혹은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에 관한 의학 적 정보를 인용하며, 육식이 비건식보다 건강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9) Rebecca Gregson, Jared Piazza, and Ryan L. Boyd, “Against the Cult of Veganism”: Unpacking the Social Psychology and Ideology of Anti-Vegans,” *Appetite* 178 (2022): pp. 106-143.

생각을 강화했다. 이들은 비건식을 시도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특히 환영하는데, 이는 소위 이러한 ‘구’비건들이 비건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담(피로감, 고혈압, 철분 결핍, 불안, 우울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거니즘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비건은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비거니즘이 우려스럽고 비건이 싫을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믿을수록 더더욱 그렇다.

냉소

건강, 윤리, 환경과 관련된 비거니즘의 메시지 자체보다는 비거니즘이 동물권 보호 및 종 차별주의 철폐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는 소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법론에 회의적¹⁰으로 반응하고 냉소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비건 개인들의 진지한 실천과 무관하게 비거니즘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와 맥락에서 신중 웰빙 트렌드로, 다이어트와 식품 산업의 신규 아이টে으로 자리 잡는 방식에 주목한다. 축산, 식품, 패션 등 크고 작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포진해 일반인들이 향유하는 식생활과 물질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거니즘은 종 차별과 동물 착취에 기반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또 다른’ 자본주의적 소비 방식을 제

10) Sarah McFarland Taylor, *Ecopiety: Green Media and the Dilemma of Environmental Virtue*,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9.

생산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에서다.

육식을 비롯한 동물의 몸을 이용하는 것에 기댄 일련의 거대 산업에 제동을 걸고 동물의 고통을 대규모로 줄이기에는 개인들의 보이콧이라는 소비자 운동이 턱없이 미미하다는 인식은 일단 비거니즘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막는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비거니즘 실천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순진하다고 여긴다. 소비자들이 각성하고 변해서 다른 선택을 하면 시장이 자동으로 이를 반영해 동물을 착취하는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는 비거니즘의 암묵적 전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비거니즘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목적(타인의 관심 끌기, 본인의 자아 정체감 고양, 비건 관련 사업 혹은 소셜 미디어 운영 등 개인 이익 도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냉소를 보내기도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행동은 무의미하다며 고기를 먹는 환경주의자들에 관한 연구¹¹⁾는 구조적, 산업적, 거시적 차원에 주목해 동물 혹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비건을 대놓고 싫어하지는 않더라도 비거니즘의 메시지에 무관심하거나 시큰둥할 수 있는지 알려 준다.

11) Evon Scott, Giorgos Kallis and Christos Zografos, "Why Environmentalists Eat Meat," *PLOS ONE* (2019):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19607>

경계

“채식을 개인의 욕망과 선택만의 문제로 볼 때, 채식 앞에서 각자가 서 있는 불평등한 ‘위치성’은 지워진다! 나는 채식을 하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비인간 동물이나 지구와의 ‘연결성’을 고민하듯, 채식 앞에서 자신의 ‘위치성’을 더욱 다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¹²

비거니즘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위계와 폭력, 착취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재생산하는 종차별주의적인 관념과 제도의 시정을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거니즘이 인간 사회 내부의 불평등과 차별, 역사적으로 형성된 권력 관계의 문제를 가려 버릴 수 있음을 의식하고 이를 경계할 수 있다. 조한진희 활동가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은 계급, 성별, 나이, 장애, 교육, 주거, 종교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그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냐에 따라 비거니즘 실천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진입 장벽의 조건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비거니즘이 이러한 인간 사회 내의 불평등을 간과한다면 마치 누구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비건이 될 수 있고 비거니즘 실천 여부는 개인의 결단과 윤리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듯 설파하게 된다.

12) 조한진희. 2020. “연결성을 넘어 위치성으로.” 『비거니즘- 채식에 기웃거리는 당신에게』. 동녘. p. 154.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간과하는 것을 넘어서 동물의 고통과 억압을 드러내는 행위가 어떻게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구조와 결합하고 소외된 사회 집단을 계속해서 주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채식주의를 상위 카스트의 도덕적 우위를 정당화하거나 소고기를 먹는 무슬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인도의 민족주의자,¹³ 동물에 대한 억압을 드러내기 위해 성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의 몸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미국의 동물권 단체¹⁴, 도살장 노동자의 계급적 위치성은 간과한 채 노동자 개인의 잔인함에 집중하는 한국의 일부 비난 여론¹⁵ 등등. 이러한 사례들은 인간 사회 내의 불평등과 억압에 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비거니즘이 인간 사회의 복잡한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을 납작하게 혹은 보이지 않게 만들지는 않을지 경계하는 것이 무리한 추측만은 아님을 환기시킨다.

시시각각 변하는 비거니즘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읽으신 이 4가지(위협, 우려, 냉소, 경계) 단어들에 비견이 싫은 당신이 지닌 마음의 결들을 충분히 담아 냈나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비거니즘을 싫어하거나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 깃든 다양한 얼굴과 생각과 경험만큼이나 비거니즘이라는 깃발 아

13) Christina Sathyamala, "Meat-Eating in India: Whose Food, Whose Politics, and Whose Rights?" *Policy Futures in Education* 17, no. 7 (2019): pp. 878-891.

14) Maneesha Deckha, "Disturbing Images: PETA and the Feminist Ethics of Animal Advocacy," *Ethics and the Environment*, 13, no. 2 (2008): pp. 35-76.

15) 전의령. 2022. 『동물 너머: 얽힘·고통·타자에 대한 열 개의 물음』. 돌베개.

래 모인 사람들의 배경과 고민, 접근 또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거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 귀 기울이고 피드백을 반영하며 비거니즘이라는 사회문화 운동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비건들은 비건과 논비건이라는 이분법과 이를 둘러싼 오해를 넘어서고자 “완벽한 비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거니즘 실천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하고 단계적인 방법을 공유하고자 노력¹⁶합니다. 인간이 지닌 신체적 힘을 고도로 발휘해야 하는 운동 선수에게 채식의 효과는 어떻게 드러날까를 살펴보는 2018년 작 다큐멘터리 <더 게임 체인저스> 또한 ‘비건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세간의 걱정을 무시하기보다 이에 진지하게 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비건도 많습니다. 2023년 5월 30일 국회 앞에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비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연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의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1년 반이 넘도록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법안 폐기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미국에서 비거니즘이 중상류층 백인들의 식문화이자 특권으로 인식되면서 유색 인종들이 비거니즘에 반발하는 것을 의식해 미국의 유색인 비건들은 비거니즘이 인종적 위계와 불평등, 문화적 다양성 이슈에

16) 미지수. 2021. 『지속 가능한 삶, 비건 지향 - 14단계로 살펴보는 모두를 위한 비거니즘 안내서』. 팜파스.

무심하지 않도록 앞장서기도 합니다.¹⁷

안티 비건과 비건의 다양한 결들을 강조하는 것은, 양쪽 다 서로를 정형화된 타입 안에 우겨넣지 않을 때, 상대방의 생각이 단순하지 않고 변화에 열려 있다고 믿을 때,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¹⁸ 제가 한국의 비건을 인터뷰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구절 중 하나가 “제가 처음에 비건 시작했을 때는”입니다. 그만큼 비거니즘 실천은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이자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동반하는 여정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이들이 올려다보는 북극성이 비취 주는 빛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구별의 지배자로 군림해 온 인간 중심주의적 사회를 극복하고 변화시키자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비거니즘이 점점 더 어필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종차별 철폐를 말하는 비거니즘의 메시지가 때로는 위협적이고, 우려스럽고, 순진하거나, 무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티 비건의 목소리 또한 경청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요즘의 비거니즘입니다. 주위에 비건이 있다면 한 번쯤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경청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든 이의 손가락을 꺾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있는 방향으로 마음의 눈을 한 번

17) 예를 들어, Monique Koch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Brown Vegan”은 본인의 유색인 정체성을 전면에 드러내며 비건으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담을 나눈다. 유색인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비거니즘을 표현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보라. Jessica Greenebaum, “Vegans of Color: Managing Visible and Invisible Stigmas,” *Food, Culture & Society* 21, no. 5 (2018): 680-697.

18) 멜라니 조이. 2022. 『나의 친애하는 비건 친구들에게 - 신념을 넘어 서로에게 연결되고 싶은 비건-논비건을 위한 관계 심리학』. 심심.

따라가 보는 겁니다. 비건이 싫어 출렁이던 당신의 마음이 가라앉으며 잔잔한 파문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긴 편지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인간 존재와 육식 문제

우석영 철학자, 한신대 생태문명원 연구 위원

●
지구 철학·생태 전환 연구자. 포스트휴먼 지구 철학, 탈성장, 돌봄, 포스트휴먼 문학 등에 관심 있다.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전문가 회원), 생태 문명원(연구 위원), 생태적 지혜 연구소(학술 위원), 산현재(기획 위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후 위기 행동 사전』(공저), 『불타는 지구를 그림이 보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걸으면 해결된다(Solvitur Ambulando)』(공저), 『날말의 우주』 등을 썼다. 『지구와 물질의 철학』,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공역) 등을 번역했다.

✉ paixici@gmail.com

핵심어: 비인간, 인류세, 탈육식, 육식, 채식

인류세의 위기와 비인간 존재 문제

1962년 한 연설에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은 이렇게 썼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오만한 목소리로 자연 정복을 이야기 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그 자랑을 실현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이 힘이 지혜로 담금질되지 않고 무 책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정복의 대가가 인류의 파멸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너무도 부족합니다.”¹⁾

이미 1962년에 이러한 인식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만, 불행히도 인류의 다른 지성들이 이와 유사한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세기가 저물고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야, 서구 과학자 사이에도 레이첼 카슨의 통찰과 비슷한 생각을 표출하는 이들이 나타난다. 현재의 지질 시대 이름을 ‘인류세(Anthropocene)’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파울 크뤼첸(Paul Crutzen)과 유진 스토머(Eugene F. Stoermer)가 대표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인류세가 상징하는 것은 카슨이 일찍이 언급한 지구 정복자 종으로서 인류가 보유한 엄청난 힘, 지구의 지질학적 질서 자체를 변형할 정도로 막강

1) 레이첼 카슨 외 지음, 스튜어트 케스텐바움 엮음, 민승남 옮김, 『경이로운 자연에 기대어』, 작가정신, 2022, p. 25.

해진 인류의 힘이다.

그런데 이 힘이 인류의 번영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에코 모더니스트(Eco modernist, 기술 낙관주의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인류세라는 새 지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지구가 향후 더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시사한다.² 그것은 인류가 인류세 담론이 확산하는 시기에 기후 변화의 현실을 실감하게 되면서, 현 시대가 인간의 지배자적 힘이 맹위를 떨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력한 사물이나 배경으로 가정되었던 비인간 자연이 실은 강력한 주체이자 행위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문제시되는 자연의 행위는 인간 문명을 위태롭게 하는 교란의 힘, “문명 자체의 파손도 진행”³시키는 힘을 지닌 그것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슬한 지표가 인간 문명을 교란하는 자연의 힘을 지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약 420ppm에 이르는 현시점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지표가 있지만, (지구 기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적절한 농도는 350ppm이라는 것이 기후 과학자들이 합의한 사항이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2022년 1회 이상 해양 폭염 상태였던 바다의 표면적은 전체의 58%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소실된 지구 빙하의 총량은 6조 톤으로 밝혀졌고, 그린란드 빙상이 전부 녹을

2) 케릴린 머천트 지음, 우석영 옮김, 『인류세의 인문학』, 동아아시아, 2022, p. 8.

3) 인류세에 관한 차크라바티(Chakrabarty) 논의에서 따온 구절이다. 시노하라 마사다케 지음, 최승현 옮김, 『인간 이후의 철학』, 이비, 2023, p. 265에서 재인용.

경우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최소 7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산불, 가뭄, 해양 폭염, 육지의 폭염, 한파, 태풍, 홍수 등은 지구에서 말붙이고 살아가는 숱한 생물들의 서식지 환경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고 그 환경이 심각하게 변형되는 사태를 뜻한다.

최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밝힌,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대게 수천 마리가 아사했을 가능성은, 이러한 전반적 타격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일 뿐이다. 생명을 위협받거나 새 거주지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것은 비인간 생물만은 아니다. 지난 10월 중하순 무렵에야 잠잠해지기 시작한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15만 5천 명 이상(올해 7월 7일 기준이니, 실제로는 훨씬 많다)이 자기 집을 떠나야만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 간 산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이때 전소된 건물은 3천 개가 넘었고 이 가운데 주택이 약 2,800채가 있었다.

이런 데이터의 홍수 앞에서, 우리는 한탄을 머금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자연을 거의 무릎 꿇리는 약탈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우리를 내쫓기 위해 포효하며 돌아온 자연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일까?”⁵라는 탄식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것이 아니라 기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탄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성찰로 돌아온다. 아니, 이런 탄식은 그 자체가 근본 원인을 탐구하고 숙의하라고 요청하는 종류의 탄식이 아닌가.

4) 김병권 외 지음, 『기후위기행동사전』, 산현재, 2023.

5) 제러미 리프킨 지음, 안진환 옮김, 『회복력 시대』, 민음사, 2022, p. 9.

어떤 철학자들은 인류세의 심층적 또는 정신적 원인을 모더니티와 그 근간이 되는 이분법적 존재론에서 찾는다. 릭 돌피언(Rick Dolphijn)은 파울 크뤼천의 인류세론 자체가 “이분법이 인류세의 핵심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⁶고 말한다. 돌피언이 보기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가 정초한 근대의 이분법적 존재론(육체/정신, 비인간/인간 이분법)은 17세기에 한때 유행했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의 특징’ 그 자체다.⁷ 돌피언이 이런 말을 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시대의 정신적 근간이다시피 한 이 이분법으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세계관의 열림이다.

시노하라 마사타케 역시, 현재의 인류세 위기가 인간에게 일종의 ‘실존적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실존적 위기’란 생명의 위기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 역시 지시한다. 인류세의 위기가 “인간 세계에 관한 전제 그 자체의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여기서 인간 세계에 관한 전제란 인간 세계가 자연을 배경으로 독립적으로 존립해 있다는 근대적 전제를 뜻하는 것으로, 마사타케가 보기에 인류가 살 길은 오직 이러한 전제를 갱신함으로써만 가능하다.⁹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는 또 다른 전제가 숨어 있다. 즉, 인간은 비인간 자연물과는 그 존재 성격이 현격히 다른 존재인 동시에(인간/비인간 이분법), 자연 조작력, 자연 통제력을 넉넉히 갖

6) 릭 돌피언 지음, 우석영 옮김, 『지구와 물질의 철학』, 산현재, 2023, p. 163.

7) 릭 돌피언 지음, 같은 책, 같은 쪽.

8) 시노하라 마사타케 지음, 조성환 외 옮김, 『인류세의 철학』, 모시는사람들, 2022, pp. 5-6.

9) 이 갱신의 내용에 관해서는 시노하라 마사타케 지음, 최승현 옮김, 『인간 이후의 철학』, 이비, 2023을 참조하라.

춘 특별한 지성체이며, 반면 비인간 존재는 저능력, 무능력, 비주체적임, 비활성적임으로 특징 지워진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게 음미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인간이 비인간을 약탈해 왔다는 사실과 인간이 비인간을 약탈해 온 독특한 방식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약탈했는가라는 질문은 여기서 중요하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인류세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세기 중반기 이후 지구적 규모에서 생태 파괴가 거대한 가속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3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 해양 산성화, 해수면 온도, 해양 어류 포획량, 해변 지역으로 유출된 질소의 양, 열대 우림의 손실량, 육지 생물 다양성 훼손량 등을 추적하여 정리한 그래프에서 우리는 1950년 이후 미친 듯이 급상승하는 곡선들을 발견한다.¹⁰ 이것은 곧 인간의 비인간 약탈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20세기 후반기 형 약탈 방식이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인간(경제)과 비인간 자연 사이에 존재론적인 깊은 골을 파 놓으며 비인간 자연을 먹어 치우는 식의 자본주의 경제를 문제 삼는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논의는 경청할 만하다. 프레이저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자연과 이상한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 용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의존, 분할, 책임 회피, 불안정화가 그것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 그래프를 보려면, Greta Thunberg et. al., *Climate Book*, Allen Lane, 2022. p. 34 참조.

프레이저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연에 의존한다. (하지만 의존보다는 약탈이 적합한 단어일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는 자연에 의존해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자연 사이에 존재론적 분할 선을 긋는다. 셋째,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자기가 유발한 생태적 재생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그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회피한다. (즉, 자연의 생태적 자기 갱신에 등 돌리고 그저 자연을 약탈하기만 한다.) 넷째,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자연은 불안정 상태에 이르러 주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며 충격을 가한다. 이런 자본주의를 프레이저는 “자기 신체의 필수 기관을 먹어 치우는 식 인종” 또는 “우로보로스”처럼 자기 꼬리를 먹는” 자로 표현한다.¹²

프레이저의 논의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자연을 늘 내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경제와 떨어져 있는, 경제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 삼는다는 것, 자신을 지탱시키는(돌봐 주는) 자연의 재생산 과정을 (자연의 자기 돌봄 과정을)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 나아가 자연 일반을 언제든 가져다 써도 되는 ‘짜구려 물질’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본주의 경제가 (정확히는 그 경제 주체가) 분열 증적 사고의 주체라는 것을, 지구의 전체적 질서에 무지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 비인간 자연이 막대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프레이저는 자본주의의 이러한 ‘괴물스러움’을 직시

11)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수이자 중세 연금술에 등장하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용 혹은 뱀의 형상을 한 생물.

12) 낸시 프레이저 지음, 『좌파의 길』, 서해문집, 2023, pp. 163-166.

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 구축을 제안하지만,¹³ 이 구축에는 반드시 저 분열증적 사고의 극복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또는 지구)의 실상에 관한 자각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프레이저 역시 “자본의 형이상학 안에서 기계적 자연관이” 부활하면서 “자본은 자연 II¹⁴를 그저 목석처럼 무감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사물들로 가정했다”¹⁵면서 자본의 약탈 행위 밑에 깔려 있는 존재론적 시선과 태도를 문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지금 우리에게 문명의 위기로 느껴지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의 원인은 비인간 자연에 대한 전면적인 약탈을 토대로 한 ‘식인 자본주의(cannibal capitalism)’ 체제라고 진단할 수 있지만, 이 약탈 체제를 아래에서 떠받쳐 온 더 깊은 곳의 파운데이션, 즉 비인간 자연의 존재론적 지위 격하, 자연(또는 지구)에 대한 무지라는 파운데이션 역시 필수 극복 대상으로 명시해야만 한다.

산업형 축산업과 비인간 동물의 존재론적 지위

현재 축산 산업용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무수한 동물 역시 그 존재론적 지위가 재고되어야 하는 자연, 자본주의에 의해 ‘싸구려 물질’로 취급되는 자연, 즉 프레이저가 말한 자연 II의 일원이다. 그러나 이 동물 집단은 인간의 거주지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다 인간의 목

13) 낸시 프레이저 지음, 같은 책, p. 155.

14) 프레이저가 말하는 자연 II는 인류의 존재론적 타자로서 자리매김되는 자연을 지칭한다. “가치 확장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목적에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스스로 보충하는 사물의 집합”인 이것은 “자본주의의 구성물”이다. 낸시 프레이저 지음, 같은 책, p. 176.

15) 낸시 프레이저 지음, 같은 책, p. 185.

표물이 되는 집단이 아니라, 인간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인간에 의해 그 출생, 생육과 성장, 일상, 질병, 죽음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자연 II 중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여기서 나는 (프레저 식으로) 때로 인간의 수탈 대상도 되지만 자연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비인간 동물을 비인간 동물 I 로, 축산 산업용 동물을 비인간 동물 II로 분류해 보자고 제안한다. 비인간 동물 II는 전체 비인간 동물 중에서도 그 처지가 가장 참혹하다.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목석처럼 무감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사물들”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나아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놀고, 사냥하고, 쉬고, 이 세계를 느끼거나 경험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후손을 낳아 가족을 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등 삶을 살아 내는 시간 동안 극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또는 선택할) 권리를 철저히 박탈당한 채로, 즉 ‘노예 신세’로 산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노예 신세’인 걸까? 오늘날 지구상 포유동물 가운데 바이오매스(biomass, 생물총량) 순위가 소, 인간, 양, 닭 순이라는 사실부터 살펴보자. 정확히는 소가 5억 톤, 인간이 3억 5,000만 톤, 양이 6,400만 톤, 닭이 4,000만 톤이다.¹⁶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소의 총 무게는 야생 포유동물 5,000종 전체의 무게를 앞지를 정도로 크다.¹⁷)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소, 양, 닭이라는 생물 종의 번영을, 그들의 복리(wellbeing)를 돕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를 뜻

16) Steve Jenkins, *Animals by the Numbers*,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6, p. 13.

17) Greta Thunberg et. al., *Climate Book*, Allen Lane, 2022. p. 108.

한다. 아니, 최근의 역사에서 인류는 소, 양, 닭, 돼지 같은 동물을 도시 주변에 가두고는 이들을 잡아먹으며 제 바이오매스를 계속 늘려왔다고 말해야 이치에 합당할 것이다. 조지 밀러(George Miller) 감독의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에는 일종의 생명 공급원인 ‘피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이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도시에서 육식을 즐기는 이들에게 도시 주변 감옥에 갇힌 이 비인간 동물Ⅱ 집단 은 자기들의 ‘피 주머니’ 같은 존재인 셈이다. 좀 더 간단히 말해, 인간 바이오매스 총량 증대(1950년 세계 인구는 25억이었지만, 2022년 11월 15일, 80억을 돌파했다.)의 배후에는 육식 증대라는 사건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은 1961년과 2018년 사이 약 4배 증가했다. (1961년 약 7,000만 톤에서 2018년 약 3억 2,000만 톤으로 증가.)¹⁸

그러나 현재 지구인 모두가 육류를 과다 섭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다. 2017년~2019년 기준, 경제 부국의 1인당 연간 육류 섭취량은 68.6kg으로 소위 개발 도상국의 섭취량 26.6kg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좀 더 소상히 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육류 섭취량이 60kg 이상인 ‘육식 악당’ 국가로는 미국,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러시아, 한국 등이 꼽힌다. 여기서 한국은 (중국, 베트남과 더불어) 1인당 60kg을 넘는 소수의 아시아 국가에 속한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넘버 1’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요한다.¹⁹

18) 이 부분의 데이터를 보려면, 독일 하인리히 뵐 재단, 지구의 벗 유럽, 분트가 공동 출간한 <The Meat Atlas 2021>, p. 13 하단 그래프를 보라.

19) <The Meat Atlas 2021>, p. 13 상단 그래프 참조.

여기서 ‘육식 악당’ 국가라 함은 ‘소비 악당’ 국가일 뿐, ‘생산 악당’ 국가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 생산 악당 국가다.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은 중국, 미국, 유럽 국가들인데,²⁰ 가령 중국 안후이성에는 하루에 돼지 1만 4,000 개체를 도살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 미국 네브라스카주에는 하루에 7,000 개체 이상의 소를 도살할 수 있는 공장이, 스페인 후에스카(Huesca) 지역 인근에는 하루에 돼지 2만 2,000 개체를 도살할 수 있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²¹

이런 충격적인 공장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순간도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 엄청난 양의 육류가 매일 어딘가에서 거의 자동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도살되는 노예 포유동물이 하나의 존엄한 삶의 주체가 아니라 상품 생산의 원료로, 철저히 원료로만 취급된다는 점을 함의한다. 제 원칙에 성실히 임하며 육류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로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돼지, 닭과 양은 석탄 화력 발전소로 공급되는 석탄이나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가는 광물과 그 존재의 지위에서 하등 차이가 없다. 즉, 그 존재의 지위라는 면에서, 인간과 그 바깥의 존재자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 성벽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이분법의 구도에서는 노예 포유동물, 식물, 광물은 그 존재 가치의 무게가 너무도 가벼워서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가정된다. 저 중국, 미국, 스페인의

20) <The Meat Atlas 2021>, p. 19 상단 그래프 참조.

21) <The Meat Atlas 2021>, p. 20.

도살 공장을 운영하는 이들이 이런 관점을 특히나 맹신하는 별종들이라는 말이 아니다. 세계 도처의 육류 대량 생산-유통 시스템은 이런 관점에 은연히 물들어 있거나 어떤 정도로든 수궁하는 상당수의 인간(축산업자, 유통업자, 식당업자, 소비자, 관료, 국회의원 등) 없이는 작동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까이서 저 노예 포유동물을 대해 본 이들, 그들을 관찰해 본 이들은 그들의 존재 가치나 능력에 관해 다른 식으로 말한다. 인상적인 것은 앨리슨 아르고(Allison Argo) 감독의 다큐멘터리 <마지막 돼지>에 나오는 미국의 어느 농장주의 사례다. 이 농장주는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 복지형 돼지 농장을 운영한 사람인데, 이 운영 과정에서 돼지라는 동물의 본모습에 눈을 뜨고는 결국 사업에서 손을 떼기에 이른다. 그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돼지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심오한 감정을 가진 생명체다. 행복한 돼지가 행복한 고기를 만든다는 생각은 불안하고도 역겨운 생각이다. 그 행복한 돼지의 유령들이 날 따라다닌다. 나는 죽음의 바다를 더 이상 떠돌지 않기로 했다.”²²

돼지만이 아니라 실은 노예 포유동물 전체가, 아니 포유동물 전체가 이런 자각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에 충분한 존재들일 것이다. 호

22) 황윤 지음, 『사랑할까, 먹을까』, 휴, 2022, p. 274.

모 사피엔스 자체가 포유동물이 지구에 발생한 이래 그 한 계통에서 진화해 온 특정 포유동물일진대, 그렇지 않을 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격하된 비인간 동물, 특히 비인간 동물Ⅱ의 존재론적 지위는 격상되어야만 한다. 문서에서가 아니라 공장에서. 문서부터 시작해 공장까지.

육식 VS 채식 프레임을 넘어서자

하지만 이 지점에서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우선은, 비인간 동물Ⅱ의 존재론적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육식의 포기라는 결단 어린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즉,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들’이라는 진심 어린 인정(또는 깨달음)과 육식 관행·문화의 포기 사이에는 깊은 골이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먹는 자(eater), 즉 동물로서 언제나 양분을 갈구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동물을 먹어 양분을 섭취하는 오래된 문화 전통에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이며, 돌봄과 친교가 흐르는 따뜻한 자리에서 동물성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쾌(快)’와 ‘락(樂)’의 기억이, 어린 시절의 귀중한 기억들처럼, 우리에게 각별한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생각할 거리는, 괴물처럼 몸집이 비대해진 비인간 동물Ⅱ 집단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상상 불가했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공장식 축산 시설(CAFO)이 인간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0년대고, 지금과 같은 대단위 공장 형태로 구축된 것은 기껏해야 1970년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²³ 그렇다는 것은, 앞서 본 20세기 중반 이래의 거대한 가속화의 물결에 공장식 축산업의 가속화도 추가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곧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생산, 소비 관련 일상 문화 전체(예컨대, 1차 에너지 사용량, 화학 비료 사용량, 물 사용량, 세계 여행, 텔레커뮤니케이션, 교통량 등의 급증)가 그러하듯, 육류 과섭취 식문화 역시 인류사를 통틀어 극히 예외적인 식문화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20세기 후반기 형 일상문화 전체를, 이것이 계속될 경우 2100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2도 상승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3.2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20세기 후반기 형 육식 문화는 ‘3.2도 육식 문화’라고 불러봄직하다.

말할 것도 없이, ‘3.2도 라이프스타일’과 ‘3.2도 육식 문화’는 인류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다 냉정히 재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세기 후반기 형 인간으로 변질되고 만 자가 제 얼굴을 똑바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냉랭한 자기 인식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자기 치료가 긴요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점, 즉 존재론적 깨달음만으로 육식을 포기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점과 (그럼에도) 우리에게 모종의 자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이 두 지점이 타협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던 내게 하나의 영감원은 중국의 한 소수 민족인 ‘어룬춘족’에 관한 이야기였다.

23) 우석영 지음, 『동물 미술관』, 궁리, 2018, p. 53.

지금도 북방 수렵 민족의 문화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 이어가고 있는 ‘어룬춘족’에게 곰은 각별하다. 이들은 곰을 ‘할아버지’, ‘영감’ 등으로 부르며, 인간과 그 뿌리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곰은 단순한 존경의 대상만은 아니다. 때로 이들에게 곰은 식량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살한 곰의 머리를 먹지 않고 집 안에 걸어둔다. 바로 보고,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제 삶을 그들 자신에게 건네 준 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이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이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인간의 길’이기 때문이다.²⁴

식량원이 되기도 하는 비인간 동물에 대한 ‘어룬춘족’의 생각과 감성과 태도와 행동은, 우리 자신의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거울이다. ‘3.2도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며 사는 우리와는 달리 ‘어룬춘족’은, 비인간 동물의 존엄한 삶과 그 삶을 희생한 비인간 동물의 살점, 이 둘의 연속됨을, 이 둘을 잇는 다리를 결코 파괴하지 않았다. 이 다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다리가 우리의 마음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는, 밥상 위의 살점이 (그래야 할 필연의 이유가 없으므로) 깊이 감사해야 마땅한 고결한 희생물(삶 전체의 선물)이라는 우주적 진리에 눈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그럴 때만, 밥상은 제의(제사)가 거행되는 신성한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육식이냐 채식이냐 같은, 초등 고학년 교실에서나 나올 법한 유치한 토론과 그 결과물로서의 어떤 정답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와 양심을 값아먹는 우리 시대의 악(惡)은 육식

24) 우석영 지음, 『동물 미술관』, 궁리, p. 219.

이 아니라 ‘3.2도 육식 문화’를 토대로 한 공장식 축산업이다. 물론, 인간과 능력이나 존재 가치가 크게 다를 바 없는 비인간 동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운 야만 행위라며, 내게 호통 칠 얼굴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풀과 나무의 능력이나 존재 가치는 우리 인간의 그것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복숭아나 사과를 우리가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것일까? 누군가의 죽음(희생) 없이는 누군가의 삶도 결코 없다는 진리를 언제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무감성, 둔감,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무지다. 우리를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무지, 무감성, 둔감의 한 변형물인 ‘수치심의 부재’, 그리고 거기에서 솟아 나오는 막된 행동이다.

앞서 소개한 1962년의 연설을 레이첼 카슨은 이렇게 끝맺고 있다.

“인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함과 지배력,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지배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과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²⁵

25) 레이첼 카슨 외 지음, 앞의 책, p. 29.

생명이 생명을 먹는 일- 오늘 우리의 먹거리를 생각한다

윤형근 전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모심과살림연구소 객원 연구원

●
한살림의 지역생협과 연합의 실무책임자로 일한 경험을 살려 현재 한살림의 조직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협동과 연대의 사회를 꿈꾸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해 좌절할 때가 많다. 자연이 주는 생기를 느끼려고 이따금 산에 오른다. 지은 책으로 <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 선구자들>이 있다.

✉ ecosoul@hanmail.net

핵심어: 이천식천, 생명운동, 먹거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시인 심보르스카(Szymborska)는 <강요>라는 시에 이렇게 썼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다른 생명을 먹는다.
사망한 양배추를 곁들인 돼지고기 사체(死體),
모든 메뉴는 부고(訃告).

인간은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한다. 몸의 세포를 만들고 움직이는데 쓰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물과 소금을 제외하면 모두 생명체다. 우리는 다른 생명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생명체 중에서 식물은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원료 삼아 스스로 필요한 물질을 만든다. 즉, 광합성을 통해 세포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 ‘독립 영양 생물’이다. 하지만 동물은 스스로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른 생명에 의존한다. 다른 생명에게 기대어 사는 존재, 바로 ‘종속 영양 생물’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생명의 진화사에서 먹고 먹히는 일의 연쇄가 오늘의 생명 세계를 만들었다. 무기물이나 환경과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생물종이 태어나고 그것들이 서로 복잡다단하게 얽히면서 생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생

1) 송만호, 안중호 『사피엔스의 깊은 역사』, 2022. 바다출판사. 이 글에서 생물의 특성, 생명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 책에 의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고생대 초기 캄브리아기(Cambrian Period) 생물종들이 급속히 증가했던 ‘생명의 대폭발’의 한 요인으로 잡아먹으려는 포식자와 피하려는 포식 대상의 상호작용을 들고 있다.

태계는 먹이사슬로 이어져 있다. 인간도 그 세계의 일원이다.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른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것, 이걸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세상이 인간에게 내린 ‘명(命)’이다. 심보 르스카는 이어서 말한다.

가장 고결한 사람들조차

죽임을 당한 뭔가를 섭취하고, 소화해야 한다.

그들의 인정 많은 심장이

박동하는 걸 멈추지 않도록.

가장 서정적인 시인들조차 그러하다.

가장 엄격한 금욕주의자들도

끊임없이 씹고, 삼킨다.

한때는 성장을 지속했던 어떤 대상을.

나는 이 대목에서 위대한 신들과 화해할 수가 없다.

육식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염두에 뒀어야 할 것은, ‘인간은 다른 생물을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시인이 거역하고 싶어 했던 신의 섭리에서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시는 아래의 구절로 이어진다.

혹시 그들이 순진무구하다면 모를까.

그들이 귀가 얇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권력을 자연에게 넘겨준 거라면 모를까.
그리하여 광란에 휩싸인 자연은 우리에게 굶주림을 선사하고
굶주림이 시작되는 곳에서
결백은 종말을 고한다.

그 즉시 배고픔을 향해 모든 감각들이 달려든다. (이하 생략)

인류 먹거리의 발자취-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진화생물학자 롭 브룩스(Rob Brooks)는 『매일 매일의 진화 생물학』이란 책에서 인간의 먹거리 방식을 바꾼 세 가지 큰 역사의 장면을 얘기한다. 첫째 채식 위주이던 유인원에서 수렵 채집하는 인류로, 둘째 수렵 채집인에서 농부로, 셋째 농부에서 제조업자로의 전환이 그것이다.²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등 유인원은 주로 채식을 한다. 가끔 단백질이 풍부한 흰개미나 애벌레, 동물의 사체를 먹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지만, 그들이 먹는 대부분은 식물의 잎사귀, 열매, 씨앗, 뿌리다. 식물은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열량이 가득한 열매를 발견하면 게걸스럽게 먹어치운다. 유인원들은 최대한으로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 열량이 풍부한 맛있는 것에 충동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우리 조상들도 그 충동을 공유하고 있다.

2) 롭 브룩스, 『매일 매일의 진화생물학』, 2015, 바다출판사. 저자는 현대인의 비만을 진화 생물학의 관점에서 추적하면서 인류가 취해 온 먹거리의 역사를 짚어 본다. 이 글에서 '인류 먹거리의 발자취' 부분은 이 책의 요지를 따라가면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우리의 조상은 200만 년쯤 전 채식의 유인원에서 직립한 수렵 채집인으로 진화했다. 새로운 인류, 호모 에렉투스³는 다른 호모니드⁴에 비해 큰 키와 몸집, 큰 뇌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채식 위주 식습관의 부족함을 동물을 사냥해서 보충했다. 단백질과 열량이 높은 지방을 섭취하면서 더 큰 뇌가 만들어지고, 도구를 만들고 서로 협력하는 능력이 생겨 채집과 수렵 실력이 늘었다. 불을 사용하면서 채소와 고기를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더 많은 에너지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는 거의 200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다. 당시의 먹거리와 생활양식이 오늘의 인류를 만들었다.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다. 인류가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이다. 정착한 지역의 자연환경 및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하며 공진화해 갔다. 지역마다 음식물로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동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적도 부근 아프리카에서는 견과와 식물의 뿌리, 포유류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채소가 자라지 않는 북극해 주변에서는 기름진 생선이나 고래의 지방에서 열량을 섭취했다. 인류의 먹거리는 공간적 조건의 제약 속에 진화했다.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은 농부다. 1만 년 전 지구상의 몇몇 지역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했다. 농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는 특정한 몇몇 작물을 탄수화

3) Homo Erectus, ‘직립원인’이라는 뜻으로 신생대 제4기 홍적세에 살던 멸종된 화석 인류를 말함.

4) Hominid, 현생 인류를 이루는 직립 보행 영장류.

물의 주공급원으로 삼게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인도, 아시아에서는 밀과 보리, 아프리카에서는 조, 기장, 수수, 중국 남부에서는 쌀을 재배했다. 또한 인류는 순하면서도 힘 좋은 동물을 길들였다. 가축들은 제사와 축제에 바칠 의례용으로, 노동과 사냥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육되었다. 그리고 쓰임이 다하면 잡아 먹혔다.

인류는 농업을 통해 먹거리를 보다 많이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점차 수렵 채집인의 생활방식은 사라져 갔다. 농사를 지으면서 탄수화물 에너지를 다량으로 저장할 수 있었다. 남은 곡물을 저장하여 잉여물이 생겨나자 사회 구조가 변했고 먹거리 및 지역 풍토와 맞물린 문화도 생겨났다.

유발 하라리(Yuval Harari)가 『사피엔스』에서도 지적했듯이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수렵 채집할 때보다 노동 강도가 더 세졌고 노동 시간도 늘었다. 단순해진 곡물 중심의 식사로 인한 영양 결핍은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잉여물을 두고 다 두고 독점하며 계급이 생겨났다. 기근과 흉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큰 위기가 닥치곤 했다.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과식하는 유전 형질은 강화되었다.

산업형 농업이 바꾼 세상- 배고픔으로부터의 탈출

산업혁명은 농사를 짓고 식량을 저장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다. 자급자족을 위한 소규모 농업은 점차 대규모 산업 농업으로 전환되었다. 비료와 농약, 거기에 농기계가 도입되면서 인간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곡물이 생산되었다. 대량 생산된 식량은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전 세계로 운송되고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밥상에 올랐다.

우리 조상들은 농업으로 인해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실제 전분과 당류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산업형 농업 덕분이었다. 노예들을 부리며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거대 플랜테이션⁵이 설탕 공급을 비약적으로 늘렸다. 설탕 가격은 낮아졌고 인간이 설탕을 통해 흡수하는 에너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제과 제빵류, 거의 모든 음료수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다.

식물성 지방을 공급하는 작물의 대량 생산도 식품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대두는 콩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이 사료로 쓰이면서 식량 교역의 주요 작물로 부상했다. 열량 높은 당류와 함께 기름 역시 인류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었다. 양산된 곡물과 대두박 등은 사료로 만들어 닭과 돼지, 소를 대량 사육하는 데 쓰였다. 풀이 아닌 곡물 사료를 먹기 시작한 동물은 이전보다 덩치가 커졌고 움직일 필요가 없어 기름 덩어리가 되었다. 곡물 재배와 함께 양계 축산은 거대 농식품 회사, 축산 회사들이 이끄는 제조업이 되었다.⁶ 거대 곡물 업체가 생산해 낸 사료를 먹고 표준화된 공정을 거치면서 똑같은 모양새와 맛을 가진 식용 동물들이 양산되었다.

양계 축산 농장은 먹거리 상품 제조 공장이다. 거세, 빨과 꼬리 제거, 인위적인 임신과 출산의 반복, 그리고 인간의 입맛에 맞춰져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컷 병아리, 수송아지 등은 상품

5) plantation, 열대 또는 아열대 지방에서, 자본과 기술을 지닌 구미인이 현지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쌀·고무·숨·담배 따위의 특정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영 형태.

6) 정은정, 『대한민국 치킨전』, 2014, 따비.

제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다. 밤낮 없이 인공 조명을 쏘고 움직일 공간도 필요치 않았다. 사시사철 알을 낳고 살이 오르고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만 만들어내는 품종으로 개량되었다. 대량 생산된 물품들은 전 지구적으로 이동해 지구인의 밥상을 점령했다. 식품 기업들은 탄수화물, 기름과 단백질 등 열량 높고 달콤함을 찾는 인류의 유전형질을 돈 버는데 이용했다. 인류는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오히려 비만과 생활 습관병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다시 땅에 뿌리박은 지혜

우리 몸은 먹는 행위를 통해 대지와 자연의 순환의 일부를 담당한다. 먹는다는 건 생태계의 일원으로 순환하는 생명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고, 다른 생물들과 공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인간은 땅과 숲에 깃들여 살아간다. 살아가는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식량 생산 체계로 발전시킨 것이 농업이었다.

작물의 조리법이나 가공, 보존 방법 등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지혜, 땅에 뿌리박은 지혜가 서로 연결되어 성장·발전하고 각지에서 고유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왕토란, 사탕수수, 바나나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열대 아시아의 뿌리채소 문화, 동부콩, 피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아프리카 사바나의 콩·잡곡 문화, 밀보리 중심의 메소포타미아, 감자·호박·옥수수 중심의 아메리카 내륙 문화, 동북아시아의 쌀 문화 등 인류는 기후 풍토나 지역 토양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고 그에 맞는 식문화를 발전해 왔다.

인류는 50만 종으로 추정되는 고등 식물 중 7천 종의 식물을 재

배 식물로 길러 왔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손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상품 가치가 높은 것만 선택해 집중 재배했다. 인류는 현재 약 30종의 작물에서 전체 칼로리 섭취량 90%를 의존한다. 가축 중에서도 소, 돼지, 닭, 양 등 몇 종류만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다. 농업이 제조업이 된 이후, 생물종의 다양성, 식문화의 다양성도 사라지고 있다.⁷

산업화된 농업은 기후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작물의 성장을 돕는 땅속 미생물을 화학 비료와 농약이 대신한다. 다량의 물을 쓰고 화석연료로 짓는 농사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준다. 기계 사용은 토질이 부드러워 갈고 맬 수 있는 땅 표면의 흡인 표토가 유실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사탕수수과 옥수수,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소와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열대 우림과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IPCC⁸가 2019년에 발간한 『기후위기와 땅(Climate Change and Land)』에서는 붉은 육류와 설탕, 유제품을 줄이고 모든 음식을 적당한 칼로리로 골고루 섭취하는 식단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도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를 1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⁹

산업화된 농업에서는 전체 농지 면적의 70%에서 전체 식량의 30%만을 생산한다. 그 대신 소농들은 20~30%의 면적에서 전 세계 먹을거리의 70%를 생산한다. 게다가 소농들은 토종 등 다양한 품종

7) 후루사와 고유, 『저 많은 돼지고기는 어디서 왔을까?』, 형진의 역, 2022, 나무를심는 사람들.

8)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9) 이의철, 『기후미식』, 2022, 웅진위즈덤하우스.

의 식물을 기르고 여러 가축을 사육하고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자급용으로 소비한다. 이로써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¹⁰

농업을 시작한 이래 소농은 제 땅에서 잘 자라는 다양한 작물을 길러 왔다. 가축 사육은 음식 부산물을 아끼게 하고 농사할 때 동력을 빌리고 큰돈을 만들거나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쓰임새가 있었다. 척박한 황무지나 광활한 초원지대에서는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풀을 가축에 먹여 고기와 우유를 얻었다. 농사를 보완하는 수렵 채집의 전통도 살아남아 있다. 주요 영양소 이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마을의 공유지나 숲에서 얻을 수 있었다. 딸감을 얻고 낙엽이나 부엽토로 퇴비를 만들고, 약초, 버섯, 나물 등 식물을 채취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재를 얻고 자연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었다. 산업형 농업이 지배적인 위치가 된 지금도 여전히 자급자족의 소농과 가족농은 땅에 기대어 인류 식량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소농과 가족농 지키기, 유기농업 하기, 도시농업·주말농장·학교 텃밭 운영, 농지 트러스트운동, 나무 심기와 산림 보전, ‘먹을 수 있는 도시경관(Edible Landscape)’ 운동¹¹, 슬로푸드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학교급식운동, 로컬푸드, 채식운동, 전통식과 발효음식 보급,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의 유기 재활용, 슬로시티 등 현재의 먹거리 시스템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명의 먹

10) 후루사와 고유, 앞의 책.

11) 식용 식물을 관상용 풍경에 통합하는 행위로, 식용 식물이 소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적 특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생동감을 주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먹거리 선택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의 보고를 보전하며, 인간과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을 가장 생명답게 대하는 행위를 깨달아 간다. 먹거리 문제는 자연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고, 또 새로운 인류 문명을 만드는 일로 연결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고기를 먹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인간이 자연에 기대어 사는 당연한 모습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의 육식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아니, 먹을거리 전체가 자연스럽지 않다. 자본의 탐욕이 만든 반생명의 세계다. 우리가 현재 먹는 것에는 생명이 없다. 살아 있는 기운, 생명의 약동하는 힘이 사라졌다.

어떻게 하면 먹거리 속에 생명의 약동하는 힘을 살릴 수 있을까. 인류 먹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농업이 도입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대지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소농과 가족농을 지키는 일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열거한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 중 어느 것이 더 옳고 더 맞는 해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먹거리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들, 그리고 그 시도들의 얽힘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새롭게 관계 맺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길을 찾기 위한 출발은 현재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현재 먹는 것, 그 먹는 것을 둘러싼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든 우리의 욕망, 인간의 생태계 독점과 생태계와 단절된 현재

를 직시하는 일이 그 시작이다. 고기를 먹는 일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¹²

‘생명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에피소드

하나, 내가 먹을 닭을 직접 잡는 날.

이는 ‘식품 공해를 추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모임[모토메르회(求める會)]’의 식생활교육 커리큘럼 중 하나다. 일본 고베에서 산직제휴(産直提携, 산지 직거래와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운동을 하는 이 모임은 근교 이치지마(一島)라는 마을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 회원들이 전량 나눠 먹는 모임이다. 우리로 치면, 정기적인 꾸러미 공급과 비슷하다. 다만, 택배로 오는 게 아니라 소비자 회원 몇 가정으로 구성되는 스테이션(생산자가 들러가는 정류장이라는 의미)에 생산자가 직접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¹³

해당 시기에 나는 작물을 전부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한 집에 호박 스무 개, 가지 열다섯 개가 공급된다. 사람들은 귀한 채소와 작물을 남김 없이 먹기 위해 이웃과 나누고, 또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하기 위한 요리 강좌를 자주 연다. 식생활교육도 왕성하다. 우

12) 인간에게 채식이나 육식이 갖는 의미와 별개로, 현시점에서 육식에 대한 문제 제기 와 채식운동은 산업화된 먹거리 시스템을 직시할 수 있는 매개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전환의 단초를 제공한다. 장우주, ‘채식은 생태적 전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전환의 정치, 열 개의 시선』, 2022, 풀씨.

13) 일본에서 ‘식품 공해를 추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모임’과 같은 산직제휴운동은 1990년대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편리를 추구하는 세태 등의 요인으로 2000년 이후 점차 쇠퇴하고 지역의 식생활교육운동 등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에피소드는 1990년대 초반 필자가 모임을 방문했을 때 목격했던 내용이다.

리가 먹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근원을 되짚어보고
오늘의 먹거리 현실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사는 세상
을 살핀다. 부엌에서 세계를 본다.

육식에서 살생은 필연적으로 거치는 단계다. 살아 있는 존재를
먹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생명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긴
다. 현재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고기는 살아 있는 생명이 아니라 스
티로폼에 비닐로 덧씌운 상품일 뿐이다. 닭고기에 닭이, 돼지고기에
돼지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 먹는 사람과 살생하는
사람이 분리되면 차별이 생기고 신분이나 계급이 되어버린다. 내가
먹는 닭을 직접 잡는 것은 소나 돼지 같은 큰 동물로 실습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닭을 잡고 있지만, 제 손으로 살아 있는 존재의 목숨을
직접 끊는 경험은 먹는 것의 의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들, 돼지가 있는 교실.¹⁴

일본 오사카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한 초보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돼지를 길렀다.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동물을 키우는 일의 어
려움, 그리고 그 즐거움을 몸소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은 생
각에 시작한 일이었다. 학교 한편에 작은 울타리를 치고 당번을 정
해 먹이를 주고 청소도 하면서 새끼 돼지를 키웠다. 우리로 치면 학
교 텃밭의 동물판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
니었다.

그 3년 동안의 우여곡절이 『돼지가 있는 교실』이라는 책으로 기

14) 쿠로다 야스후미, 『돼지가 있는 교실』, 김경인 역, 2011, 달팽이.

록되고 후지TV에 방영되어 ‘이게 과연 교육인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P짱은 내 친구>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도쿄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과 관객상을 받았고, 한국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최고 인기상을 받았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졸업을 앞둔 아이들이 그동안 기르며 정들었던 돼지 P짱의 운명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다. “잘 길러서 다 크면 잡아 먹자”라며 시작했지만, 3년의 세월과 그동안 쌓인 관계의 깊이는 아이들의 고민을 심화시켰다.

“잡아먹는 것이 P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잡아먹는 것이 P짱을 위한 것인가요?” “돼지는 잡혀 먹히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간이 멋대로 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P짱을 먹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분으로 남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고 후배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결정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대화는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치 않은 일인지 어른들을 일깨운다.¹⁵

아이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리자 결정은 선생에게 맡겨졌다. 선생은 P짱을 식육센터로 보내기로 한다. 한 인터뷰에서 선생은 어떤 선택이 아이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또 교육적일까를 생각했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숙명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15) 정규호, ‘식품과 생명 사이- 고기동물의 운명’, 《살림이야기》 2009년 06호 중에서.

셋, 인디언이 사냥할 때.

“작은 형제여, 너를 죽여야만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네 고기가 필요 하단다. 내 아이들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달라고 울고 있단다. 작은 형제여, 용서해다오. 너의 용기와 힘 그리고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하 마. 자, 이 나무 위에 너의 뿔을 달아 줄게. 그리고 그것들을 붉은 리 본으로 장식해 주마. 내가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너를 기억하며 너 의 영혼에 경의를 표하마. 너를 죽여야만 해서 미안하다. 작은 형제 여, 나를 용서해다오.”¹⁶

인디언은 동물을 같은 어머니 대지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 로 여긴다. 그리하여 생존하기 위해 형제, 자매를 죽여야 하는 숙명 을 슬퍼한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가 필요할 때 동물의 영혼에게 고 했다. 또 필요한 양만큼만 사냥했다. 그들에게 독점과 축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동물들을 결코 재미로 죽이는 일도 없었다. 어려 서부터 어른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사냥하기 전에 그 비인간 존재인 생명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 왜 사냥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다. 인디언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정신의 발로 아니었을까.

생명을 먹는다는 것,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종교는 대부분 먹는 것에 관해 경건하다. 기독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긴다. 불교는 육식을 금하고 다른 생명에 의존하는 존재의 실상을 연기(緣起)라고 한다. 그리고 식사를 자

16) 어니스트 톰슨 시튼, 『인디언의 복음』, 김원중 역, 2000, 두레.

기 몸을 바치는 ‘공양’이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과 비인간 존재, 사물 까지도 하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는 동학은 ‘밥 한 그릇 안에 우주가 깃들어 있다(食一碗萬事知)’고 하고 또 ‘이천식천(以天食天, 거룩한 생명이 거룩한 생명을 먹는다)’이라는 표현으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성화(聖化)한다. 원불교는 먹는 것을 포함하여 사는 것 자체를 우주 만물의 은혜로 여긴다.

종교는 대부분 먹는 행위를 거룩하게 여긴다. 생명을 먹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먹는다는 것이 다른 존재에게 기대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명을 먹고 다른 존재들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뜻일 것이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 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여.

-이현주 <밥 먹는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생명을 먹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듯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준 또 다른 명(命)이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들어가 생명 세계의 순환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내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¹⁷ 그것이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의 책임이고 의무다. 한살림에서 발행했던 《살림이야기》 창간호에서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밥이란 게 희생이란 뜻이에요. “저 놈은 내 밥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저 인간 내 맘대로 이용해 먹겠다는 소리지만, 사실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는 얘기거든요. 밥이란 게 원래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17) 인간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부패와 분해의 과정을 거쳐 다른 존재의 먹이가 되는 자연과 생명의 순환 속 존재다. 후지하라 다쓰시는 『분해의 철학』(2022, 사월의 책)에서 생명의 세계를 부패와 분해의 연쇄로 파악하고 있다. 먹이의 연쇄(먹이사슬)로서의 생태 시스템을 분해의 연쇄(분해의 사슬)로 다시 읽어 내는 작업은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전환 기획에 많은 상상력을 제공한다.

로 만물이 저마다 누군가의 밥이 되어야 돌아가게 되어 있
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의 밥이 되지는 않고, 저 혼
자 일방적으로 먹으려고만 하니까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겁
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해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밥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농사를 짓는 농부
를 우리가 도와서, 농민들에게 우리가 밥이 돼 줘야 해요.
그리고 농민은 우리들을 위해서 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순환을 계속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밥이고, 아이들은
늙은 부모의 밥이 되어 부모에게 공양을 바치고... 이런 식
으로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에 대해서 밥이 되는 것. 해월
선생이 이천식천(以天食天)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말
씀하셨잖아요. 한울님이 한울님을 먹고 산다고, 존재하는
모든 게 한울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슈

기후 위기 시대,
한살림 농업 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농업 재해 대책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기후 위기 시대, 한살림 농업 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상동 한살림생산자연연합회 생산지원본부장

한살림 지역생산조직 실무자로 일하다가 생산자연연합회 사무처에서 생산지원과 생산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연합 실무자, 그리고 지역 생산 조직 실무자들과 함께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소통과 조정의 역할을 하며, 생산자의 자주적 생산 관리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달 한살림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활동가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sangtong21@hansalim.or.kr

핵심어: 기후재난, 생산지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한살림생산 안정기금

점점 위세를 부리는 여름철 장마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지구촌 전역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폭염과 한파,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이 모든 계절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봄철 이상 저온, 6월의 우박,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농업 분야의 피해가 컸다. 특히 중부지방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강수가 집중되면서 한살림의 주요 산지인 부여, 청주, 괴산, 경북 등지의 농작물과 농업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의 위세는 ‘사상 유례없는 폭우’,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2020년)’, ‘115년 만의 기록적인 비(2022년)’ 등 점차 강도 높은 수식어를 동반해 가고 있다. 이렇듯이 우기에 해당하는 7월 호우로 인해 장마철 기간과 강수량, 집중 호우의 빈도가 증가하는 새로운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남쪽의 온난 습윤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서 장마 전선이 형성된다. 보통 남부 지방은 6월 23일, 중부 지방은 6월 25일경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데, 6월 중순은 하지 감자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2022년에는 강원 경기 지역의 봄철 호우와 6월의 집중 호우로 감자 정식과 수확에 악영향을 받았다. 한살림 감자 주생산지인 강원도 공근 지역은 7월 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감자를 수확하지도 못하고 밭에서 썩혀 버리는 상황에까

지 이르렀다.

<표1> 2022년 강원 공근 강수량

시기 지역	감자 정식기 (3월 25일 ~ 30일)	감자 수확기 (6월 20일 ~ 30일)	7월 초
강원 공근	3월 25일 : 9.5mm 3월 26일 : 22.5mm	6월 23일 : 42.5mm 6월 24일 : 43.5mm 6월 27일 : 28.0mm 6월 29일 : 46.0mm 6월 30일 : 106.5mm	7월 4일 : 46.0mm 7월 5일 : 13.0mm 7월 6일 : 0.3mm

자연 재해로 생산지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에 생산 소비 계획과 약정 재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살림의 물품 생산과 공급 체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특히 하절기는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의 불안정성이 높은 편인데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생산지 폭우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한살림 생산지 피해는 2018년, 2020년에 이어 2023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8년은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2020년에는 긴 장마와 폭우, 태풍이 이어지면서 과수, 시설 작물, 밭작물, 벼 등의 작물 피해는 물론 하우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2023년에는 7월 14일과 15일에 걸친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 지방의 시설 재배 작물과 시설 하우스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표2> 2020년과 2023년 한살림 폭우 피해 현황

기준	유형	지역	피해 생산자 (명)	피해 면적 (평)	총 피해액 (백만)	평균 피해액 (천원)	기타
2020년 9월 말	장마/ 폭우	청주, 부여, 충북 남부, 충북 북부, 전북, 강원, 전남, 전북, 아산, 경남, 경북, 홍천	150	172,000	3,614	24,000	9월 이후 태풍 피해가 추가되어 총 288명 피해
2023년 9월 말	장마/ 폭우	청주, 부여, 괴산, 충북 북부, 경북, 전남, 전북	101	130,000	2,430	24,000	한축회 별도 (24억 원)

시설 하우스 재배지인 청주와 부여는 인근 하천의 범람과 수로 역류 등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시설 하우스의 특징상 수원이 풍부하고 평지인 논을 이용하는데, 배수 펌프장 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시설의 배수 용량이 적은 경우에 하천 독이 무너지고 범람하여 농지와 시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청주의 미호천 주변에 형성된 시설 재배 단지는 2018년, 2020년, 2023년 세 차례 물난리를 겪었다. 청주는 한살림 일일 채소류를 연중 작기로 생산하고 있는데, 7월~9월에 근대, 로메인, 상추, 쌈케일 등의 일부 작물은 고행지인 홍천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 나머지 여러 가지 잎채소류, 과일 채소류, 열매 채소류는 폭우와 폭염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수확 중이거나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토마

토, 멜론, 파프리카 하우스가 침수되거나 붕괴되어 생산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생육을 잘 관리하고 화방 수를 높여 다수확을 꿈꾸던 농부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물이 빠지고 난 후 시들해진 줄기에 달린 멜론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잘라 보면 물러 있고 쓴맛이 난다. 바이러스에 취약하여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파프리카가 수확을 앞두고 수해로 줄기와 잎이 서서히 말라 죽어 일 년 농사를 망친 생산자도 있다.

올해 7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중부 지방에 쏟아진 집중 폭우로 청주 지역은 비가 427.8mm 내렸다. 이로 인해 정봉동, 신대동, 신촌동 일대의 수로로 물이 역류하면서 논과 시설 하우스가 침수되었다. 또한 서촌동은 제방 둑이 무너져 흙탕물과 토사가 밀려 들어와 한살림 4 농가 시설 하우스 28동 5,500평이 파손되었다. 피해 지역 근처에는 미호천의 홍수 조절용 서촌 배수지(배수량 24m³/초)가 직선거리로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상습적으로 범람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지자체와 수자원 공사에서 배수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배수 용량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 부여는 7월 14일 하루 동안 254mm의 폭우가 쏟아져 시설 하우스와 재배 중인 멜론, 수박, 고추, 산 딸기, 대파 등이 피해를 입었다. 청주와 마찬가지로 시설 하우스에 인접한 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괴산 감물 지역에서는 옥수수, 감자를 막 수확하고 서리콩, 메주콩, 쥐눈이콩과 같은 잡곡 모종을 정식하는 시기에 수해를 입었다. 밭이 쓸려 내려가면서 심어 놓은 모종이 모두 떠

내려가 다시 밭을 만들고 정식해야 했다.

괴산 한축회(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는 TMR¹ 한우 사료 공장의 침수로 인해 사료 원부재료, 완성 사료 등 피해 규모가 24억 원에 달했다. TMR 공장은 설비 등의 침수 피해뿐 아니라 한우 생산 회원들에게 공급하려던 완성 사료와 원부재료의 손실이 커서 한축회 경영에도 큰 부담을 주었고, TMR 사료 공장을 재정비하고 가동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우스가 침수되었다가 오랫동안 물이 빠지지 않으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물에 잠긴 정도와 기간에 따라 작물의 피해 정도가 달라진다. 침수될 동안 뿌리가 호흡을 못해 물이 빠진 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작물도 시간이 지나면 줄기와 잎이 서서히 말라 죽기도 한다. 뿌리가 약한 잎채소류는 단기간 내에 썩거나 햇빛에 녹아버린다. 과채류나 열매 채소류 작물은 열매를 일시적으로 수확할 수도 있지만 습해를 입은 뿌리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작물별로 칼슘, 마그네슘, 붕소 등의 결핍으로 인한 생리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열매는 상품성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작물이 완전히 고사하기 전에 일부라도 수확하려면 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겉으로는 땅이 말랐지만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질어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땅이 마르고 단단해져야 복구 작업에 나설 수 있다.

1) Total Mixed Ration, 한우가 하루 동안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여러 종류의 사료를 혼합한 사료.

폭우 피해 복구와 한살림 가족 일손 나누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지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한살림 조합원들과 활동가, 실무자들이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들이 수해를 입은 생산자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었다. 올해 전국에서 총 인원 282명의 한살림 가족들이 괴산, 부여, 청주의 폭우 피해 생산자들을 방문하여 일손을 나눴다.

시설 하우스 자체가 붕괴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하우스 파이프 등의 철거 작업이 만만치 않다. 일손 나누기나 자원 봉사를 온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우스 입구에 만들어 놓은 작업장에서 농기구나 가전제품 등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일이다. 하우스 시설 정리에서 제일 큰 문제는 소형 트랙터와 관리기 등 침수된 농기계다. 고장난 상태에서 가동할 수 없어 하우스 안에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나 지자체에서 수리 전문가들을 확보해 침수 농기계 순회 수리를 진행하지만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하우스가 붕괴되어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는 일은 전문 업체에서도 꺼린다. 결속된 연결 부위를 일일이 풀고 비닐을 제거하고 밖으로 끄집어 내는 일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 방문하여 실익을 따져보고 고물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한다. 이번에 청주 지역 시설 하우스 철거 작업은 군인들이 지원에 나서서 가능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철제 파이프를 풀어서 밖으로 내놓은 덕분에 업체에서 뒷정리를 할 수 있었다.

<표3> 작기에 따른 작물 피해와 복구 작업

작기	주요 품목	피해	작물 상태	복구 작업			
				발견조 (출입 가능)	세부 작업	발 만들기	총 소요일
단작	방울토마토, 메론, 수박, 파프리카, 고추	침수, 토사 유입	뿌리-> 잎이 순차적으로 고사	2주 ~ 3주 (날씨와 침수 정도에 따라 다름)	배수 작업 작물 잔재/ 비닐 등 제거 토사 제거	태양열 소독, 로터리 치기, 골 만들기, 멀칭 등	1개월 ~ 3개월
다작	어린잎 채소, 쌈 채소, 열무, 열갈이, 청경채		잎 뿌리 고사				1개월 ~ 2개월

독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쓸려 들어온 필지는 생산자가 직접 복구 작업을 하기 어렵다. 경북 지역의 경우 산사태까지 발생하여 웬만한 장비로는 손을 쓸 수 없었다. 지자체의 지원을 기다리느라 지친 생산자들은 삽이라도 들고 나서 보지만 금방 포기하거나 그대로 둔 채 피해를 보지 않은 작물이라도 건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다.

냉해, 우박, 폭우, 병충해가 중첩되는 작물 피해

폭우 후에 발생하는 병충해를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미 떨어진 과일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탄저병이 든 과실은 빨리 따내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올해 썸머킹, 홍로, 아리수 등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던 조중생 사과 품종은 탄저병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

소했다.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과수뿐만 아니라 방제력을 허용하는 참여 인증 1단계 과수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작년에는 탄저병 발생 이후에 방제 횟수를 뒤늦게 조정하면서 적기를 놓쳐 탄저병을 잡지 못한 농가들이 있었다. 올해는 집중 호우가 끝나고 바로 긴급 방제력 조정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탄저병이 훨씬 광범위하게 퍼졌고, 안전 사용 시기가 맞지 않아 추가 방제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여 좀더 선제적이면서 유연하게 방제력을 조정하는 등의 병해충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

과수는 이미 봄철 냉해로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탄저병까지 닥치면서 피해가 누적되었다. 4월 개화기 기온이 낮거나 밤낮의 기온차가 크면 냉해를 입는다. 꽃이 떨어져 아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다. 수정된 것들도 열매가 금방 떨어지거나 작게 결실을 맺는다. 서리 피해를 입은 동록과가 유난히 많아 사과 선별 기준을 조정하고 ‘대견한 과일’로 공급하기도 하지만 정상과의 비율이 낮으면 생산자의 소득이 줄어 어려움이 크다.

국지적으로 우박 피해까지 겹쳐 발생하는 생산지는 충격이 더 크다. 2020년 8월 폭우가 있기 전, 6월에 우박이 내렸다. 한살림 사과의 주요 산지인 거창 지역에 약 10분 가량 많은 우박이 쏟아져 일대의 사과밭 70%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잎이 찢어지고 사과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면 사람의 살처럼 아물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흉터가 남은 채로 성장한다. 우박 피해로 정상적 공급이 어려운 사과는 이후에 ‘대견한 과’로 공급하였다. 올해도 6월 초순에

우박이 내렸다. 충북 북부 지역에 지름 2cm에 달하는 우박이 20여 분 이상 쏟아져 인근 1,410여 농가 708.5ha(214만 3천 평 정도)에 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한살림 충주 공동체 2만 7,000여 평의 필지에서 생육 중이던 복숭아와 사과, 고추 등 작물이 낙과, 멍, 패임, 잎 찢김 피해를 입었다. 지자체가 농약대 등의 일부를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하지만 1년 농사를 망친 생산자들의 낙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남은 과실을 포기할 수도 없다. 똑같이 방제하고 관리하느라 인건비와 약제비가 그대로 들어갔다. 재해 지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직접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다.

폭우 피해와 친환경 인증

관행농지와 인접한 친환경 생산지의 경우 침수로 흙탕물이 들어오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취소를 하지 않고 3회 누적 방식으로 처분한다. 그러나 관행 농지로부터 유입된 흙탕물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이 MRL² 기준이나 PLS³ 상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 표기를 하여 출하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해 품목 표시 정지 행정 처분을 받거나 해당 필지 작물의 출하 중지를 하는 경우에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 침수를 입은 작물은 사실상 출하가 불가능하고, 다음 작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로

2) Maximum Residue Limit, 농약 잔류 허용 기준.

3)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터리 작업을 하고 녹비 작물을 뿌리거나 태양열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지에서 흘러나와 친환경 필지의 토양에 들어간 농약 성분을 제거하는 일은 친환경 농지를 새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용과 제도 개선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고 생산자가 일정 비율의 자기 부담금을 낸다. 시군별로 요율이나 개인별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된다. 채소류를 재배하는 원예 시설 하우스는 작물과 농업용 시설 하우스를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올해 7월에 하우스 침수를 입은 청주 4 농가 중 2 농가는 하우스 시설을 임대해 농사를 짓던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시설에 대한 권리나 보험 가입 권한은 임대인에게만 있어 임차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생산자는 청주시로부터 100~2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안정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자연 재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생산안정기금은 보험 성격이기보다 자조금의 일종으로, 생산자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공적 기금으로 볼 수 있다. 한살림과 약정한 농산물 생산량의 50%(주잡곡은 60% 적용)에 미달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보전해 준다. 2020년~2022년 생산안정기금 집행 자료에 따르면, 한살림 생산자

의 생산안정기금이 승인되어 기금을 집행한 290건을 분류한 48품목 중에서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품목(2023년 61개)은 5개 품목이고 전체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

<표4> 작물재해보험가능 품목 수와 생산안정기금 대상 품목 수

구분	작물재해보험 가능	생산안정기금 대상(2020년~2022년)		
		기금 집행	재해 보험 가입 가능	작물 재해 보험 가입
품목 수	61	47	31	5

반복되는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제한된 생산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액의 1/2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과수 피해는 규모와 금액이 커서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1/2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가급적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생산안정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32.9%, 2019년 38.9%, 2020년 45.0%, 2021년 49.4%, 2022년 49.9%로, 최근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 재배 농작물의 재해보험은 목적물을 시설하우스, 난방 및 부대시설과 비화훼류 시설 작물로 두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 비율에 따라 자부담 금액이 달라진다. 2023년에 충북 청주 지역에 한살림 생산자가 가입한 시설하우스 1,052평 토마토 재배에 대한 농작물 재해 보험을 보면, 계약

자 부담 37만 9,300원(8.7%)+정부 지원금 222만 5,860원(56.5%)+
 지자체 지원금 151만 6,050원(34.8%) = 412만 1,210원으로 보험비가
 산정되어 있다. 이 경우 보험가액은, 피해 작물 재배 면적(1,052평) ×
 작물별 보장 생산비(토마토 1만 4,400원) × 경과비율 × 피해율= 보
 험금으로 산정된다. 경과 비율은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며칠이 경과하였는지, 또는 수확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며칠이
 경과했는지를 적용한다.

보험가액 산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보장 생산비다.
 2023년 주요 작물 보험가액(원/㎡, 1기작, 1년)은 수박 6,140원, 딸기
 1만 9,460원 토마토 1만 4,400원, 오이 9,620원, 참외 7,850원, 호박
 1만 660원, 풋고추 1만 440원, 파프리카 2만 9,940원, 멜론 9,000원
 상추 5,990원 시금치 1,800원 부추 5,900원, 가지 1만 6,920원, 배추
 4,190원 무 3,200원, 대파 2,580원, 쪽파 3,950원, 썩갓 2,600원으로
 나타나 있다. 매년 작물별 보험가액이 변동되고는 있지만 친환경 농
 업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
 년 친환경 농업 소득 자료 조사’ 최종 보고서와 2019년 소득 조사 분
 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 배추의 생산비는 176만 9,910원/10a, 유기
 농 269만 6,991원/10a, 무농약 394만 7,781/10a로 조사되었다. 일반
 배추 대비 유기 1.5배, 무농약 2.23배, 친환경이 평균 1.87배로 나타나
 고 있다. 친환경 농업 품목에 대한 생산비 조사와 이에 따른 작물별
 보장 생산비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인 조사가 어려운 경
 우는 표준 품목을 활용하여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생산 현장에서는 작물 재해 보험의 보장 범위와 수준이 낮다는 점과 보험료 인상과 할증 체계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된 재해 복구비 지급과 현실적인 피해율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농작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의 품목을 늘리고 피해 규모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 재해와 작황에 따른 출하 기준 탄력적 적용

농작물은 생육 특성상 작기를 놓치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작물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한살림의 자주기준과 생산출하기준을 마련할 때 자연 재해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자연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작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출하 기준이나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크기, 길이, 중량, 당도, 빛깔과 윤기 등은 기후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다. ‘대견한 과’나 ‘못난이 과’가 정상과에 미치지 못하는 물품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소비를 독려하는 차원이라면, 출하 기준의 탄력적 적용으로 정과 기준을 조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살림 농업정책에서는 생산기준과 출하기준이 높는데, 이제는 이 상기후로 친환경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결과 중심의 국

가 친환경 기준으로는 조합원의 품질 품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많아졌다. 국가 친환경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살림 기준(예를 들면 자가 육묘나 유기 재배 기준, 무가온 재배 등)을 지키고 차별적 농업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시중 친환경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일부가 오염된 상황에서, 국가 인증 행정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장에 물품이 없는데도 구분해서 수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산자의 기술이나 노력이 부족하다느니, 도덕적 해이가 있다느니 하는 목소리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에게도 이런 농업 현실을 충분히 알리고 이해시키며 생산과 소비의 협동의 방식으로 기후 위기와 농업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살림의 독자적 인증 기준인 참여 인증의 내실화를 통해 기후 위기·농업 위기 시대에 한살림이 새로운 생명살림운동의 지평을 열어 가야 할 것이다.

이슈

농업 재해 대책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을 맡고 있고, 단국대학교 환경 자원 경제학과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농업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며 농업 재해, 농산물 가격, 농민 수당, 여성 농민 정책, 지자체 농정 분석 등을 주요하게 연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식량 주권 실현 방안을 집중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 leesm1658@gmail.com

핵심어: 기후 취약 계층, 농업 재해 보상 제도

기후 위기와 기후 취약 계층 농민의 위기

얼마 전 추석 연휴, 경남 진주에서 농사짓는 농민 운동가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갑작스레 닥친 안타까운 비보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처럼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쉬는 연휴에도 쉬지 않고 병해충에 시달리는 단감을 살피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취약 계층인 농민은 더욱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과 풍요로운 추석 전후 기간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수확철로 일년 농사의 결실을 누리는 시기다. 추석 차례상에는 황금빛 들녘에서 갓 수확한 곡식이 오르고 추석이 끝난 이후 남부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수확이 한창이다.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제철 과일은 사과, 배, 단감 등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냉해, 우박, 폭우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다수 과일 작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꽃이 피는 4월의 저온 피해는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내린 비는 일조량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우박으로 상처 입은 과실은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없는 비품이 되었지만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이은 재해로 약해진 과실은 급기야 탄저병 등 병해충에 시달렸고, 물량이 부족해졌다. 농민들은 일년 농사를 망쳐 버렸다.

과일 가격이 올라 제수용품을 장만하는 소비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언론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하지만 사과 값, 배 값이 아

무리 올라도 농민들은 아무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소비자는 잘 알지 못한다. 농민들은 단지 생산비가 보장되어 제값을 받고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자연 재해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들어 추석처럼 많은 물량이 소비되는 시기를 놓쳐 버리면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시장에 내어 놓을 물량이 없다는 것은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큰 아픔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수입 확대다. 국내에서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입이라는 손쉬운 방식을 택한다. 그것은 수확량이 급감한 농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농업 재해, 농업 재생산 활동의 위협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2 관계 부처 합동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 지방의 가뭄은 227일이나 계속되어 1974년 이후 가장 길었다. 가뭄, 집중 호우, 태풍, 대설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자연 재해로 인한 농경지, 농작물, 가축, 비닐하우스의 피해 규모와 피해액도 크다. 농경지 피해액은 898억 원 규모, 피해 면적은 75,999ha에 달했다. 농작물 피해는 피해 면적만 보고되고 농경지처럼 피해액으로 산출되지는 않는다. 지난 5년간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2,878만 ha로 이 중 답작(논) 피해가

68.0%, 전작(밭) 피해가 30.1%다. 가축은 150만 마리를 폐사했고, 비닐하우스는 334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5년 중 농업 재해 피해가 가장 큰 해는 2020년이다. 당시 54일 동안 긴 장마가 계속돼 전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라남도 구례 등의 지역은 섬진강 제방이 붕괴해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표 1>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업 재해 피해 현황

구분(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농경지	면적	ha	894.82	13,154.08	1,355.71	60,384.99	209.57	75,999
	피해액	천원	13,365,129	5,233,227	9,627,595	56,242,974	5,300,035	89,768,960
농작물	전작	ha	180.16	5,199.85	2,288.08	8,666,708.7	1,113.58	8,675,490
	답작	ha	46.05	2,455.27	4,128.13	19,568,111.5	111.236	19,574,852
	기타	ha	5,361.92	51,515.28	139,904.41	293,632.3	39,524.55	529,938
	계	ha	5,588.14	59,170.40	146,320.61	28,528,452.6	40,749.36	28,780,281
가축	마리	545,837	153,074	48,291	642,148	115,386	1,504,736	
비닐하우스	ha	13.22	38.77	7,659.30	1,133.15	7,166.52	16,011	
	천원	1,257,919	3,990,763	9,912,709	15,659,765	2,575,602	33,396,758	

출처 : 행정 안전부. 국가 재난 안전 포털 자연 재난 상황 통계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논, 밭, 비닐하우스 등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감소한다.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생산비도 고스란히 잃기 때문에 농업 재해 피해는 단순한 소득 감소의 문제가 아닌 농가 생계와 농업 재 생산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재해는 더욱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와 밀접한 농업의 특성상 농민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기후 취약 계층이지만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할 책임은 농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현재 농업재해 대책의 운영 실태와 한계점

빈번한 농업 재해 발생, 수입 농산물 증가, 농업 생산비 급등 등 우리 농업에 닥친 위기는 단순하지 않다. 내·외부에서 커지는 위협 요인은 농업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농민들의 생활 환경과 영농 활동을 위협하며 농업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든다. 농민의 위기는 결국 국가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 재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민과 농업 현장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얼마나 단단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 재해 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보조 및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농작물 재해 보험이다.

농업 재해 피해 보조 및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1967년 1월 제정된 것으로, 농업 및 어업 생산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

조(보조 및 지원)에 근거하여 자연 재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 피해가 발생하면 생계비와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은 대과대(종묘·비료대), 농약대, 가축 입식비 등 직접 지원이 있다.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생계비, 학자금 등을 간접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은 피해 농가를 생계 구호 차원에서 일부 지원할 뿐 다시 농사를 지을 수준은 되지 못한다. 종묘비 및 비료대 등의 지원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지원 단가가 증액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농민들이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생산비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조차도 농업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농가는 대과대(농작물), 입식비(가축), 복구비(농림 시설) 지원이 불가능하다.

농작물 재해 보험 운영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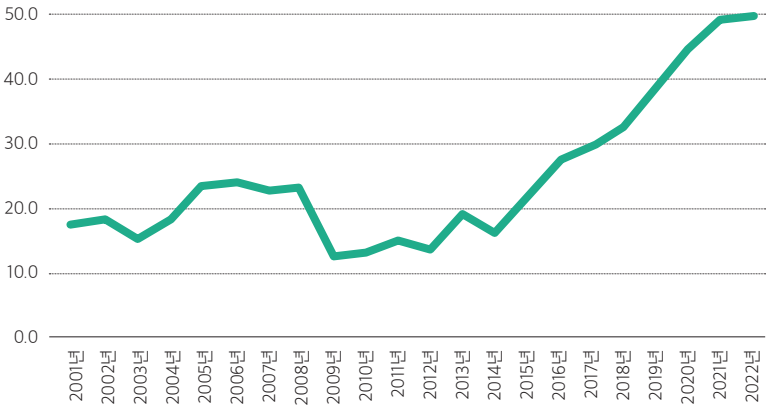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장 기간이 단기인 소멸성 보험이며 정책 보험이다. 2001년 사과와 배, 두 개 품목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시범 사업을 포함한 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률은 49.9%, 가입 면적은 60만 9,000ha, 가입 농가 수는 51만 3,000호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 가장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딸은 감)과 논 작물(벼)이다. 과수 4종의 가입률 평균은 64.3%인데, 품목별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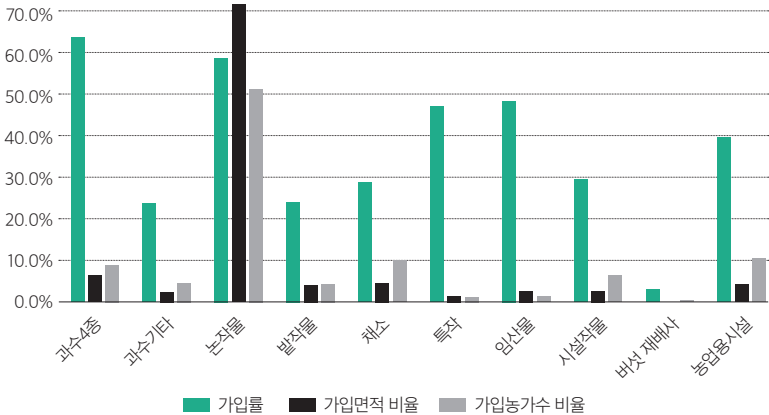
면 사과 89.4%, 배 76.8%, 단감 30.5%, 뽕은 감 32.1%로 과수 4종에도 가입률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벼는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 전체 가입 면적의 71.4%를 차지할 정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가입하는 품목이다.

<그림1> 농작물 재해 보험 연도별 가입률



<그림2> 품목별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현황(2022년)



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 정책 보험 실적 집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보험의 한계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 보험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지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가입률이 50%를 넘는 품목은 메밀, 밤, 유자, 벼, 배, 월동 무, 사과, 당근 정도로 대다수의 품목은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오미자, 버섯재배사, 느타리 버섯, 복분자, 고랭지 감자, 고구마, 옥수수, 표고버섯, 무화과, 오디, 매실, 새송이버섯, 참다래, 포도 등은 평균 가입률 10%도 되지 않는다.

농업 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한 영농 환경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나마의 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가입률이 과거보다 떨어지는 품목도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족과 잦은 내용 변경으로 농민들은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변경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②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품목과 품종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농민만 가입할 수 있고, 메밀은 전남과 제주,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 봄 감자는 경북과 충남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 ③ 보험에 가입할수록 보장성이 점점 낮아진다. 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다. 평년 수확량 산출 방식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설정된 낮은 기준 가격은

보험 가입 농가의 불신을 불러 오고 있다.

- ④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 비율(평균 20%)을 부담해야 한다. 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하는데 피해율보다 자기 부담 비율이 높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 ⑤ 기후 변화로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재해 보험에서 병충해 피해를 보장하는 품목은 벼, 고추, 복숭아 등 일부 뿐이다.
- ⑥ 재해 보험 사업자는 농협 손해 보험으로, 농협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운영이라는 특성상 보험 가입자의 상황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불신이 커지고 있다.
- ⑦ 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 평가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율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율 평가 기준이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농업 현장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점이 현장의 큰 불만이다.
- ⑧ 친환경 농작물이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일반 관행농과 차별적인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⑨ 2022년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농가 수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102만 3,000호)의 50.2%에 불과하다. 농민 절반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채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 재해의 사각 지대가 너무나 크다.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이 안고 있는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농업 재해 대책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개정

피해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16건이 발의되었고 이 중 14건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우선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재해로 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기준을 경영비로 함’이나,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 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 ‘농가가 농업 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소득의 일부 보전’ 등의 내용은 의미 있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13건이 발의되어 현재 6건이 계류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재해 보험의 한계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고, 농업 현장의 상황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보험은 양날의 칼이다. 수량만을 고려하는 보험은 농민이 안전하게 농사짓게 하는 대책은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장치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정책일 뿐이다.

농가의 경영 위험성을 감소해 주는 보장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 보험은 특성상 정부 재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험의 보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고 있다. 이는 정부를 믿고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의 믿음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늘어나는 병해충 피해도 고려해야 하며, 보험 가입 제한 요소도 최소화해야 한다. 농사 특성과 작물별 특성에 맞는 보험을 설계해야 하고, 손해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농업 현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 사회에서 농협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처럼, 재해 보험에서도 농협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업 재생산 보장 및 비보험 작물 보호

현재 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민이 더 많고 상당수가 보험에 회의적이다. 단기로는 재해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하지만, 중장기로 보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재해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재해 보상 제도의 목적은 모든 농민이 재해의 위험에서 보호받

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로 더 빈번해진 재해에 대비하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농민들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EU와 캐나다는 농업 위험 관리 프로그램에서 자연 재해에 의한 농업 위험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개인 책임과 공공 책임의 영역을 분리하고 있다. 재해 보상 제도 발동 조건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 재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작목별 평균 재배 면적 이상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영역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업 재해는 경제적인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농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농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다. 농민과 농촌 공동체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기후 취약 계층임을 인정하고 농업의 취약성을 사회 안전망 강화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합동. 2023. “2022년 이상 기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23. “농식품부, 수재 의연금 모금 및 일손 돕기 등 집중 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3.7.24.
 이수미. 2020. “농업재해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1)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 위험성 증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슈 보고서』 제328호.
 이수미. 2020. “농업재해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2) -농작물재해보험 한계와 개선 방안.”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슈 보고서』 제329호.
 이수미. 2023. “농업재해 대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슈 보고서』 제352호.
 이수미. 2023. “농업재해 대책 강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 모색.” 『국회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23.7.27.
 송원규, 이수미. 2022. “농업재해 대책 등 농가 경영 안정 방안.” 『농어업 농어촌 특별 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포털.





담
론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 논의의 접점

담론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 논의의 접점

최명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자연 보전의 문화적, 정치적, 기술적 측면을 탐색하는 환경 사회과학자. 다종 인류학, 인간 너머 지리학, 정치 생태학, 과학 기술학의 접근법을 이용해 야생 동물과 자연 보전, 인간-자연 관계, 생태시를 연구하고 있다.

✉ myungae.choi@gmail.com

이 글은 2022년 6월 모심과살림연구소가 개최한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 찾기'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핵심어: 포스트휴머니즘, 생명 담론, 비인간 행위자, 인류세

포스트휴먼과 생명

최근 한국 사회에서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닌 듯하다. 인공 지능과 로봇틱스의 발달로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유사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의 인지적, 신체적 한계를 초월하리라는 극단적 전망은 ‘인간’의 경계를 다시 묻게 한다. 나아가, 인간의 경제적 활동이 지구 환경 변화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최근의 ‘인류세’ 진단은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을 분리해 사유해 온 근대적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구가 직면한 생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적 인간-자연 관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촉구한다. 역사적, 물질적으로 생산된 자연-사회의 연결망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계를 새롭게 묻는 ‘포스트휴먼’ 논의는 지난 20여년간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도 빠르게 발전해 왔다. 여기에는 인간과 자연-사회의 존재론, 인식론을 다루는 다양한 철학 분야,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최근의 과학기술학 논의와 객체지향존재론, 신유물론(new materialism)으로 대표되는 생기적 철학,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망과 작동을 강조하는 인간 너머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ies), 다종적 인류학(multispecies

ethnography)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¹ 이들 연구는 개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인간 예외주의’와 ‘인간의 종적 우월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근대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담론적, 실천적 전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² 나아가 세계의 구성과 작동에서 비인간 존재가 갖는 역할을 강조하고, 세계의 생성과 작동을 인간-비인간 관계망의 맥락화 된 수행을 강조하는 비본질주의적 입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이같은 연구 흐름을 묶어 내는 하나의 범주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문명에 대한 반성과 대안적 담론 및 실천 추구는 앞서 국내의 ‘생명’ 논의에서도 두드러진다. 한국의 생명 담론과 생명 운동은 전통적 개념인 ‘생명’을 재발견하고, 현대적 상황에 맞게 대안적 담론과 실천으로 발전시켜 왔다. 전통적 의미의 ‘생명’은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 ‘생명체’와 생명체가 소유한 ‘생명력’을 가리키는 용어로³,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같은 기표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한국의 생명 논의는 전통적 자연 철학에 그치지 않고, 동학, 신과학 운동, 서구 생태주의 등 다양한 동서양 철학을 종합해 현 시대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는 환경 철학 이론이자

1) 신상규 외, 2020; 이경민 외 2021; Mol, 2002; Whatmore, 2002; Bennett, 2009; Lorimer, 2012; Tsing, 2015; Choi, 2016; Haraway, 2016

2) 페란도, 프란체스카. 2021.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 시대를 이해하는 237개의 질문들』. 이지선 옮김. 아카넷

3) 주요섭. 2020. 『‘몸-생/명’의 세계관, 저항과 꿈꾸기의 생명운동』. 모심과살림연구소.

정치적 실천으로 발전해 왔다.⁴ 생명 논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과 생명 존중의 윤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층 생태주의(deep ecology)로 대표되는 전통적 환경 철학의 모습을 보인다.⁵

그러나 생명 논의에서 발전시켜 온 ‘생성’의 원리와 ‘살림’의 규범은 근본 생태주의를 넘어 최근의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와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존재의 위계적 질서를 거부하고, 모든 생명의 유기적 관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명 논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인류, 탈인간 지향과 일정한 접점을 보이는 듯하다. 이 글은 최근의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에서 생명 논의와 교차점을 갖는 몇 개의 논의 및 개념을 짚어 보고, 생명 논의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 전반에 대한 요연한 개요가 아니며,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를 결합해 향후 생명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점을 짚어 보는 탐색적 연구임을 일러 둔다.

포스트휴머니즘 vs. 생명 논의

포스트휴머니즘 철학자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포스트휴머니즘을 ‘탈인간주의(post-humanism)’와 ‘탈인류중심주의(post-anthropocentrism)’의 수렴에서 찾는다.⁶ 탈인간주의는 서구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비판으로, 인간의 신

4) 장일순, 박해일, 김지하, 최혜성 외, 1989. 『한살림 선언』. 모심과살림연구소.

5) 문순홍. 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6) 브라이도티, 로지. 2015.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체적, 지적, 도덕적 역량과 향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인간 예외주의의 근원이 되었다고 지적한다.⁷

한편, 탈인류중심주의는 인간이 상정한 종적 위계 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인간의 종적 우월성에 대한 거부를 가리킨다. 인간 예외주의와 우월주의 대신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역사적, 물리적, 신체적 얽힘을 전면에 내세운다. 특히 비인간 존재의 행위성을 강조하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신체적 조우를 통한 정동적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이들 포스트휴머니즘 연구자들은 인간과 비인간의 위계를 인정하지 않는 ‘평평한 존재론’을 기반으로, 연결망을 통한 인간과 비인간들의 다양한 상호 작용 방식과 이를 통해 재구성되는 인간-비인간 관계의 정치적, 윤리적 측면에 주목한다. 이들에게 세계는 인간과 비인간이 얽힌 혼종적 어셈블리지의 수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적 성취물로 이해된다. 이 절에서는 생태 사회적 위기의 원인, 비인간 존재, 인간-비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 논의를 비교해 본다.

7) 이같은 맥락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을 통한 인간 신체와 인지의 향상을 강조하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과 구분된다. 마인드 업로딩, 신체냉동보관, 초지능 등으로 논의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 발전을 통해 질병, 죽음 등과 같은 인간이 가진 신체적, 인지적 한계를 극복할 것을 기대한다(커즈와일, 레이. 2007.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장시형, 김명남 옮김. 김영사.; 보스트롬, 닉. 2017. 『슈퍼 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 조성진 옮김. 까치.) 올프는 인간 역량의 강화를 이를 통한 물리적 한계 극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이 서구 계몽주의와 인간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1) 위기 진단: 인간 중심주의 vs 산업 문명

포스트휴머니즘 연구는 근대적 이분법을 거부하고 인간-비인간, 자연-사회의 얽힘과 분리 불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인간 활동을 지구 환경 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최근의 ‘인류세’ 논의와 연결지어 이들은 특히 근대의 인간 중심적 사유와 실천에 주목한다. 서구 근대의 특징적인 자연-사회 이분법과 그에 기반한 인간 중심주의가 생태사회적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역사학자 차크라바티의 지적처럼, 근대 25년은 인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한 기간이지만, 동시에 전대미문의 속도와 규모로 생명을 파괴하고 지구 시스템을 교란한 자기 파괴의 연대이기도 하다.⁸ 이들은 생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인간-자연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 중심주의의 외부에서 세계의 구성과 작동을 사유하기 위해 이들은 특히 그간 간과되었던 비인간 존재에 주목한다.

생명 논의 역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와 접점이 있다. 생명 논의는 현재의 위기를 ‘생명 위기’로 보고, 위기의 원인을 ‘산업 문명’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산업 문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 기술, 경제 체제와, 근대적 이원론적 사유, 특히 기계론적 세계관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한다. 최근의 인류세 및 포스트휴머니즘 논의가 ‘인간’을 위기의 원인

8) Chakrabarty, D. 2009. “The climate of history: Four theses”. *Critical inquiry* 35(2): 197-222.

으로 지목한다면(예. 인간 활동, 인간 중심주의, 서구 자본주의), 생명 논의는 ‘문명’을 문제의 근원으로 본다. 이같은 시각은 서구 산업화, 과학기술, 인간 소외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심층 생태주의와 일정한 친연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 생태주의가 주류 문명의 외부, 즉 ‘개인’의 각성과 ‘대안적 공동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 논의에서도 개인 및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한편, ‘인간’을 문제시하는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비인간’과 인간-비인간 관계의 혁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비인간 행위자 vs 생명체

포스트휴머니즘에서 ‘비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 즉 동물, 식물, 도구, 기술, 자연 현상, 나아가 지구 그 자체까지 지칭하는 폭넓은 용어다. 오랫동안 비인간은 인간의 간섭이 이뤄지는 수동적 대상이나 배경으로 여겨져 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한편 비인간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즉 ‘행위성’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규정한다. 이들은 비인간이 선행적으로 행위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적 연결망에 결합되면서 행위성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한편, 최근의 생기적 유물론과 토착적 사유에 기반한 연구자들은 비인간이 존재 그 자체로 갖고 있는 활력, 힘, 물성에 주목하면서, 비인간의 행위성이 단순히 부여받는 것 이상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또, 동물의 문화, 사회성을 드러내는 동물행동학 연구를 참조해, 최근 동물지리학자들 또한 동물과 같은 생물이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구나

기술 같은 무생물과 구별됨을 지적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이처럼 비인간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연결망에 결합된 행위자이며, 이들의 수행을 통해 세계가 새롭게 생성되고 전개된다고 본다. 또, 비인간이 사회적 실천(예. 축산, 농업, 의료, 과학, 자연 보전) 등에 인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개입해 온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강조하며, ‘공동체’는 인간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다양한 비인간이 결합되어 있는 ‘인간 너머’ 혹은 ‘다종적(multispecies)’ 공동체로 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생명 논의의 ‘생명’은 인간을 포함해 동식물, 돌멩이, 흙까지 다양한 생물과 무생물 존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비인간 개념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구분하는 근대적 이분법의 관성을 보여 준다면, 생명은 모든 존재를 평평하게 취급하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보여 준다. 생명 개념은 생명 에너지를 갖고 상호 의존해서 작동하는 존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의 행위성과 혼종적 연결망 논의를 연상시킨다. 한편, 포스트휴머니즘이 행위성을 ‘부여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면, 생명 논의는 모든 존재가 선형적, 내재적으로 생명 에너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모든 생명은 ‘영’이나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의 ‘영성’은 생명의 거룩함을 느끼는 능력으로, 이 역시 선형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행위성이나 정동을 관계망의 결과물로 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관계적 입장과 구분된다.

한편 김지하 등의 생명 논의는 ‘모든 존재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토착적 사유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 듯하다. 김지하는 생명이 날개 개체 ‘실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우연적인) ‘생성’으로 보고자 한다.⁹ 이같은 비본질주의적 입장은 존재를 연결망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과 조응한다. 또 ‘살림’은 존재를 ‘살려 낸다’는 동사이면서 동시에, 혼종적 공동체를 가리키는 명사이기도 하다. ‘갯살림’은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이 갯벌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음을 드러내며, ‘논살림’은 논이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생명을 부양하는 삶의 터전임을 상기시킨다. 이같은 ‘살림’의 공동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 너머’ ‘다종적’ 공동체를 연상시킨다.

3) 변성 vs. 살림

비인간을 인간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존재로 보면서, 포스트휴머니즘은 비인간의 행위성을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도록 윤리적, 정치적 실천을 새롭게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스텐저스(Stengers)와 라투르(Latour)는 세계를 이해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비인간 존재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이같은 정치적 지향을 코스모폴리틱스(cosmopolitics)라고 부른다. 인간, 동물, 나아가 다양한 비인간이 따로 또 같이 변성하도록 하는 ‘다종적 정의(multispecies justice)’는 코스모폴리틱스의 목표면서, 동시에 이를

9) 김지하, 2003. 『생명학1』, 화남출판사.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번성’은 비인간이 단순히 수단으로 여겨 지거나 고통받지 않는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고유의 생태, 습성, 잠재적 가능성을 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차원을 가리킨다. 해러웨이 등은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에 주목하고, 인간과 구별되는 비인간의 역량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간-비인간 관계를 재구성할 것을 강조한다.¹⁰ 비인간은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들은 비인간의 복잡함, 개성, 나아가 인간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미지의 특성을 존중하고, 비인간의 ‘다름’이 세계의 구성과 작동에 가져오는 결과에 열린 태도를 갖는다. ‘번성’에 대한 강조는 비인간을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으로 보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근대적 생명정치와 구분되는 새로운 생명정치, 긍정적 생명정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번성’은 생명 논의의 ‘살림’ 개념을 연상시킨다. 기존의 (심층) 생태주의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섭 중지를 명령했다면, 번성이나 살림은 존재를 살려 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장려하는 듯하다. 또, 살림이 인간 뿐 아니라 비인간 생명이 함께 하는 ‘인간 너머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공동체의 작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동시에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번성 개념과 교차된다. 흠살림이나 논살림의 경우, 미생물이나 동물(오리, 메기, 우렁이)을 이용해

10) Haraway, D. J. 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Duke University Press.

흡과 눈에 결합된 생명을 살려내는 형태로 실천되곤 한다. 이처럼 동물/자연을 ‘생태적 기술자’로 이용해 생태적 과정을 복원하는 방식은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논의되는 대안적 자연 복원 방식인 ‘재야생화’와 비슷하다.

비인간의 문제

생명 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은 자연/비인간을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행위자’ 혹은 ‘생명’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 생명의 ‘생성’적 차원에 대한 강조와 ‘살림’의 원칙은 포스트휴머니즘의 과정적 존재론과 다종적 번성의 지향과 교차하는 듯하다. 한편, 인간이 아닌 생명, 즉 ‘비인간’에 대해 생명 논의는 포스트휴머니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 필자는 아래 몇 가지 지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 논의의 비인간 논의가 차이를 보인다고 본다.

첫째, 두 논의에서 비인간이 갖는 위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예외주의와 우월주의를 생태사회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비인간’을 사유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이는 포스트휴머니즘이 근대적 자아-타자의 이분법을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탈식민주의와 여성주의 논의는 여성, 선주민, 유색 인종 등이 자아에 대한 부정적 대립항으로서 ‘타자’로 구성되었음을 드러내고, 이들을

정치의 장으로 포함했다. 인류세 위기에 대한 인식은 동식물, 곤충, 균, 바이러스 등으로 타자의 범주를 확장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을 매개하는 기술적 인공물로 관심을 확장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비인간 존재에 행위성과 정치적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다.¹¹⁾ 한편, 생명 논의는 인간과 비인간의 인위적 구별을 지양하고 이들 모두를 ‘생명’이라는 큰 개념으로 규합한다. 생태사회적 위기의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생명’의 위기와 회복이 강조되지만, 포스트휴머니즘과 달리 비인간을 구별해 특별한 이론적, 실천적 위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둘째, 비인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차이다. 최근의 동물지리학과 비판적 인류세 연구는 동물 행동학, 생태학, 생물학 등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의 융합을 통해 비인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동식물 및 미생물의 생태와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비인간의 생태적, 사회적 복잡성을 깨닫게 하고 이들에 대한 경이와 찬탄을 불러 일으키며, 나아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동적 기제로 역할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비인간 연구가 과학을 중요한 인식론적 도구의 하나로 활용한다면, 생명 논의는 과학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하다. <한살림 선언>이 신과학 논의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때 과학은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논하는 철학에 가까워 보인다. 또, 동식물과 생태계에 대

11) 이경민, 홍성욱, 우희중, 전철, 김태연, 강금실, 이진호, 이상철. 2021. 『인간 너머의 인간: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 인간, 자연』. 사월의 책.

한 과학적 지식 생산은 생명에 대한 기계론적 접근으로 이해되면서 생명 논의에 본격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듯하다.

셋째, 인간과 자연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의 문제다. 생명 논의는 인간과 인간 아닌 생명의 충돌에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 생명은 존중해야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이 이용할 수 있는 존재다. 이같은 모호함은 육식처럼 다른 생명에 대한 착취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 자연 보전과 같은 실천에서는 보전을 독려하는 한편, 계속되는 착취와 파괴를 용인하는 ‘양날의 칼’로 작동한다.

먼저, ‘생명 존중’은 온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감각이자 규범으로, 자연 보호의 강력한 원칙이 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조문에 ‘생명 존중’이 명시돼 있는 것은 동물 보호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외경심,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수질을 둘러싼 논쟁 끝에 나타난 ‘생명을 살려달라’는 호소는 새만금 갯벌 매립 반대 운동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구의 동물 보호 운동이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이나 ‘이성’을 근거로 동물 보호를 제도해왔다면, 한국에서는 동물/자연이 ‘생명’이라는 사실 자체가 보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명은 다른 생명의 필요에 따라 희생될 수 있는 존재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은 때로 인간이 자연 착취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고래잡이를 오랫동안 해 온 울산 장

생포에서는 ‘고래는 생명이지만, 인간이 먹기 위해 잡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려 달라’는 호소는 온 국민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지만, 새만금 갯벌은 결국 매립됐다.

포스트휴머니즘 또한 인간과 비인간의 충돌에 대해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해러웨이 등은 윤리를 보편 타당한 도덕적 원칙에 따른 의무의 실천으로 보는 대신, 개별 인간-비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필요에 따른 맥락화된 실천으로 본다. 비판적 연구자들은 이같은 관계적 윤리가 공장식 축산, 실험 동물과 같이 현실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에 대한 착취를 막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해러웨이는 특정한 인간-비인간 관계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가리킨다. 특정한 생명에 대한 원칙적 보호나 이용을 명령하는 대신,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맥락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에 ‘응답’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물 실험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 동물 실험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나아가 동물 실험의 중지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윤리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결론: 번성과 살림의 생명 정치

이 글에서는 최근의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와 생명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두 논의가 인간-자연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갖는 함의를 살

펴봤다. 먼저,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와 생명 논의는 인간 중심주의와 산업 문명과 같은 근대적 기획과 실천을 생태사회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인간-자연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간의 생존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만 여겨졌던 비인간 존재를 인간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생명으로 새롭게 발견하고, 이들과의 공존 및 공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근대적 자연-사회 관계와 구분된다. 한편, 포스트휴머니즘 논의가 비인간을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 소환하고 과학적 접근을 결합해 비인간 및 인간-비인간 관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면, 생명 논의의 비인간은 인간-비인간의 얽힘을 강조하는 다소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결론을 대신해 필자는 포스트휴머니즘의 ‘번성’과 생명 논의의 ‘살림’이 갖는 긍정적 생명 정치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 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비인간에 대한 논의는 공장식 축산, 실험 동물 등과 같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비인간에 대한 조직적, 제도적 착취를 전환하는 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인간-비인간의 ‘번성’과 ‘살림’에 대한 강조는, 비인간의 생태와 본성을 발현할 새로운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내자는 보다 적극적인 ‘응답’의 기획으로 연결될 수 있다.¹² 해러웨이는 동물 연구자 데스프레(Despret)의 논지

12) 최명애. 2022. “응답의 정치: 동물권 너머의 동물 정치”. 『사회와 이론』, 87-132쪽.

를 빌려 인간과 비인간의 대면을 이들 존재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할 것을 제안한다. 즉, 서로 다른 존재의 상호 작용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역량과 가능성이 발견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러웨이는 비둘기의 비행 능력과 귀소 본능을 활용해 비둘기를 도시 대기질 측정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비둘기가 비단 도시 유해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도시의 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인간의 존재에 주목하고, 인간-비인간의 연결망 속에서 이들의 역량을 발견하고 강화하자는 이같은 입장은 혼종적 연결망에 기입된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살림’을 만들어 내려는 생명 논의의 입장과 조응하는 듯하다. 살림은 혼종적 공동체를 지칭하는 동시에, 혼종적 공동체의 비인간 존재들의 삶을 부양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생태적, 정치적 규범이기도 하다. 이같은 ‘번성’과 ‘살림’의 정치는 인간-비인간의 상호 작용을 비단 착취가 아니라 존재의 삶을 꾸려 내는 ‘긍정적 생명 정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
모임



제주에서 보내온
이야기



독자모임

제주에서 보내온

한살림제주에
모심과살림 독자모임이

생겼어요!

21호를 함께 읽고

후기를 보내 오셔서

소개 드립니다.

정성껏 보내 주신

이야기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

♥ 이 은 정

앞 표지부터 뒷장 바코드까지 온전히 한 권을
읽어가면서 ‘순환’이라는 단어를 내내 떠올렸다.
나와 우리에게 생긴 것은 나와 우리에게 기인한 것이고,
나와 우리로부터 비롯되어 결국 나와 우리에게
다시 귀착되는 것임을.
한살림 정신이니 가치니 하는 것이 이제 관념으로만
남은 게 아니냐고들 하는 시점에 매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 관념 혹은 이념의 어떤 부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현실에 반영해 내고 다시 현장에서 새롭게 가치의 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소소하게, 그러나 즐겁고도 단단한 자세로
담론 활동을 해 가보자, 다짐하면서 나와 우리의 활동이
그렇게 견고해질 것을 바라본다.

♥ 김 희 남

인상적인 구절: “기후위기 앞에서 지구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없이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순환 고리를 다시 복원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꼭 필수적인 노동을 중심으로 노동을 재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해자에 해당하는 노동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언제나 깨달음을 주는 벗들과 함께하는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활동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다.

♥ 이 세 은

지역으로 보내주시는 모심과살림지를 가끔
몇 챗터씩 넘겨 보긴 했지만 이렇게 마음먹고 함께 읽고 나누기는
처음이었어요. 역시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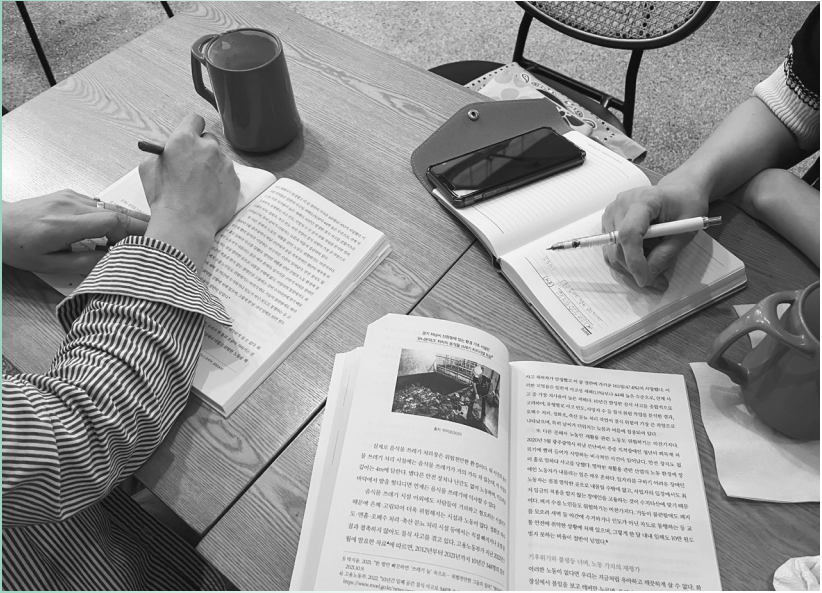
한살림에서 일하면서도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생각과
가치들을 돌아보고 채찍질할 수 있어 좋았어요!

‘하나뿐인 지구’를 ‘유한한 닫힌 시스템’으로 다시 보고,
나부터 나의 삶에서 매일 소비의 총량을 정해 실천해
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분해와 순환이라는 한 흐름으로
연결된 이번 호를 읽으며 우리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새겨 봅니다.

언제나 재앙은 가장 약한 곳으로 흐르는 듯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분해자들에게
오늘도 빛을 지고 삽니다. 기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와닿는 지금,
보다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주위를 보아야겠습니다.

고민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신 모심과 살림에 감사드립니다^^



♥ 김정연

지구와 환경자원은 유한하고, 인류는 포악하게 번식 중이다.
 환경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연은 환경보다 경제에 무게를 둔다.
 독일에서 생산되는 세계 광고 중 이런 게 있다.
 청량한 계곡물이 흐르고 커다란 파도가 치는 지구를 조명하며,
 결국 지구는 모든 것을 정화하니 세제도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적으로는 좋지만,
 소름이 돋기도 한다.
 결국 자본주의는 환경을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지경의 순간에도 낙관론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있다.

어떤 경제학자나 환경론자도 해답을 말하지 못한다.
위기만 인식할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기를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비워 내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미래는 그 결과가 될 것이다.
한살림에서 일하며 정작 『모심과살림』을 정독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살림의 정신을 동의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했다. 환경과 소비, 경제를 아우르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돈 버는 법, 부자 되기를 가르치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일까?
자본주의적인 경제교육의 한계와 부작용을 비판하며
노동교육, 경제시민교육, 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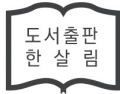
오늘의 교육 선집

돈을 위한 경제교육을 넘어

부자 되기를 가르치는 학교

하금철·채효정·진냥(희진)·장윤호·이운승·이영주·서재민·서부원·박내현·김형성 씀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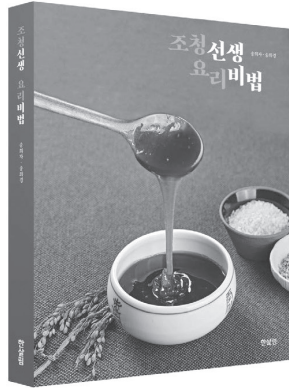
학교에서 금융·투자·재테크를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런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노동, 복지, 생태, 시민을 말하지 않는 경제교육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유용한가. 돈이 전부이며 빈곤은 개인의 무능 탓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교사들과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돈을 위한 경제교육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고민하자는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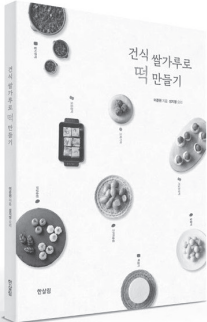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밥상을 모색하는 한살림 요리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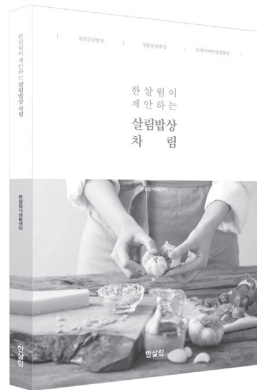
밥을 짓다
사람을 만나다
고은정 지음
값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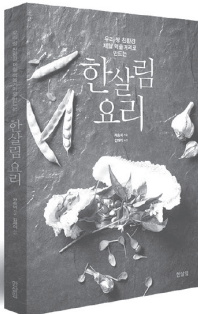
양념의 통념을 깨고 자연에서 주연으로 등장한 조청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음식에세이 & 요리책
조청선생 요리비법
송희자·송희경 지음 | 값 23,000원



건식 쌀가루로
떡 만들기
이준원 지음
값 17,000원



밥상과 농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밥상차림, 이웃과 세상과 함께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한살림 살림밥상음
한살림이 제안하는 살림밥상 차림
한살림식생활센터 지음 | 값 17,000원



우리 땅 친환경
제철 먹을거리로 만드는
한살림 요리
채송미 지음
값 18,000원

한살림 장보기(shop.hansalrim.or.kr)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story@hansalrim.or.kr 전화 02-6931-3612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도서출판한살림



도서출판 한살림

한살림 장보기(shop.hansalim.or.kr)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story@hansalim.or.kr 전화 02-6931-3612



모심과살림연구소

www.mosim.or.kr
mosim@hansalim.or.kr
02-6931-3609



재생종이로 만든 책



9 772287 597009

ISSN 2287-5972



00
권 8,000원